

| 목 차 |

인사말	박소희 이사장	2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선정사업 소개		
서울_흥부네그림책도서관 외 47곳		
서울_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서울_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경기_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30곳		
경기_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_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외 3곳		
대구_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47곳		
울산_울산작은도서관협회		
우리에게 '스스로' 아카데미란?		
협회소개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박 소 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2019년이 끝나가는 11월에 전국의 작은도서관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민간에서 처음으로 작은도서관콘퍼런스를 진행합니다. 2009년 작은도서관이라 도서관법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고 1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처럼 작은도서관이 많이 변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인터넷이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어지면서 빠른 속도의 기차를 타고 갈 때 주변 경치가 확확 지나가는 만큼 사회의 변화의 속도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차는 목적지가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종착지는 어디인지, 타고 가고 있는 기차는 맞게 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차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수적으로 확장된 작은도서관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찾는 길에 질문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2017년부터 작은도서관을 향해 3개의 방향을 가지고 작은도서관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향이 작은도서관 역사찾기였습니다.

엄대섭의 마을문고, 부산의 양서협동조합,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노동도서관, 그리고 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른 동네마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 활동의 뿌리와 역할과 변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운동의 역사찾기'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정책연구였습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들이 현장과는 떨어진 학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체가 참여하지 못하기도 하고, 도서관계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다 보니 연구 또한 수적으로 적을뿐더러 그마저도 현장의 입장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정책은 작은도서관이 가야 할 길을 밝히고 현재 필요한 내용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조망하며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자치단체도 중앙정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주체들이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의견이 담은 정책연구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17년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기초연구,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작은도서관 어린이책 기본장서연구,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에 대한 연구,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및 협력,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인식 연구등 소중한 연구가 모아졌습니다.

2019년에는 실무자가 제안하는 작은도서관 교육, 작은도서관 문화예술활동, 생활형 soc시설로서의 특화작은도서관 공간구성모델, 작은도서관이 가지는 청년 배제적 요인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번 2019 작은도서관 콘퍼런스에서 연구의 결과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9차에 달하는 작은도서관 정책포럼을 통해 현재적 이슈들에 대한 배움과 토론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도서관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교육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교육의 기회와 내용에서도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교육을 작은도서관협회 단위에서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도, 없어서도 문제이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할 것인가, 누가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차별로 고민이 다르고 이를 교육으로 풀어보고자 하는데 예산도 없고 교육 기획력도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교육은 어쩌면 작은도서관 운영의 근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스스로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2018년과 2019년에 진행된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입니다.

협회에서 직접 진행했던 작은도서관 아카데미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는 사색하게 되었고, 다른 시선으로 작은도서관 활동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의 수용, 정동의 개념과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넓은 세상을 해석하고 작은도서관 활동의 의미를 찾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들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국 작은도서관을 향해 스스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 주체들을 모아보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초 교육도 없었던 곳에서는 작은도서관 역사와 개념을 잡아나가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이신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협회가 구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이론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거나, 작은도서관이 지역 사회 속에서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을 잡아 진행한 곳도, 사람들과 그 집단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많은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다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모아내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을 담아 교육 활동을 구성한 곳 등 다양한 작은도서관 교육 사업들이 제안되고 실행되었습니다.

2019년 작은도서관 콘퍼런스의 현장에서 그동안 진행된 정책연구와 교육사업의 과정과 성과가 발표되어집니다. 작은도서관 일상이 녹록치 않음을 알기에 운영 자체만도 버거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고 품을 내신 연구자들과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정책연구의 성과와 스스로 제안하시고 실천하신 교육 내용들이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을 생각하면 늘 순례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기에 첫발자국을 남기는 것은 그 뒤를 따라올 무수한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길을 만드셨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작은도서관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길도 만들어져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변하고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객관적 환경도 변화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나가는 길이 작은도서관다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작은도서관콘퍼런스에서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을 말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가는 길에 힘을 보태어 주신 도서문화재단 씨앗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지하지 않게 격려받으며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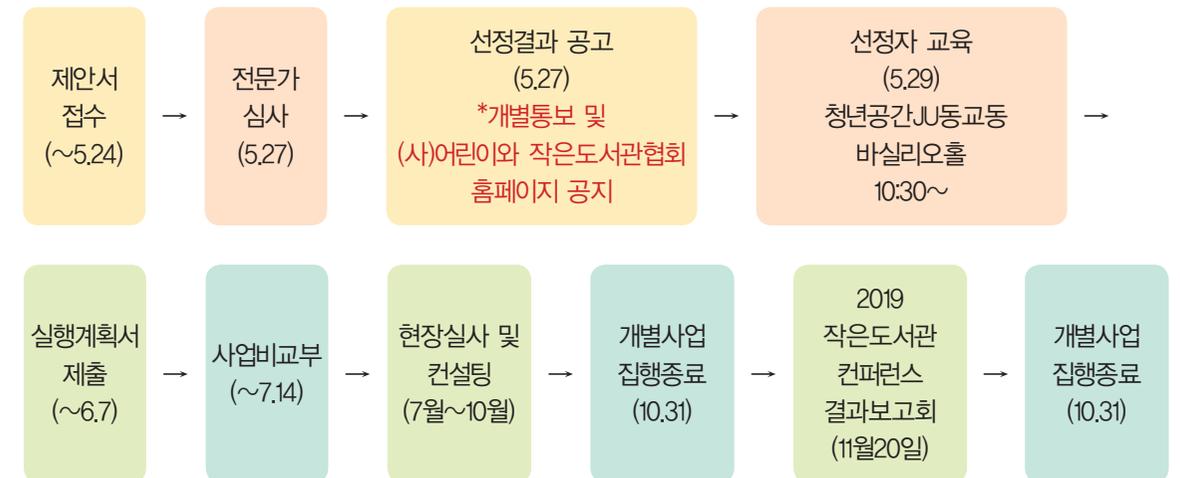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6월~11월
- 사업내용
 - 각 단위별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 현장 실사와 컨설팅을 통한 교육지원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보고회를 통한 교육내용 공유 기회제공
- 사업목적
 - 아카데미 기획 및 진행지원을 통한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성장
 - 작은도서관의 교육기획력 및 질적 향상 지원
 - 지역네트워크 조성 계기 마련
 - 새로운 교육기획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교육모델 제시
 - 작은도서관의 교육자생력 향상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 대한 책임기 지원
 -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자료집 발간을 통한 사업 공유
- 공모내용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스스로 기획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신청자격
 - 3개 이상 작은도서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7인 이상의 모임 및 네트워크, 협의회

■ 지원금액 : 총 17,000,000원 (8개 단위, 단위별로 지원금액에 차이있음)

날 짜	내 용
울 산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서 울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외 47곳
대 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7곳
구 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인 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외 3곳
서 울	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경 기	모당공원작은도서관 뜰안에작은나무 도서관 반디작은도서관 평화를 품은집 평화도서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갈갈갈 책놀이터 작은도서관 호수공원작은도서관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서 울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 사업추진일정



■ 추진현황

날 짜	내 용
5/7(수) 사업공고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페이스북과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5/24(금) 접수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5/27(월) 전문가 심사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아카데미실에서 진행
5/27(월) 선정 결과 공고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5/29(수) 선정자교육	- 청년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 10:30~12:30 - 사업 개요 및 회계 지침 교육 - 단위별 지원사업 내용 공유
6/7(금) 실행계획서 제출	- 아카데미 수행을 위한 실행계획서 접수 마감
6/14(금) 사업비 교부	- 선정 단위에 사업비 일괄 지급
6/21(금)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서울 실사
7/24(수)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 실사
8/12(월)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들안익작은나무 등 실사
9/3(화)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울산 실사
9/9(월)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강북 실사
9/24(화)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인천 실사
9/26(목)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대구 실사
10/31(목)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집행 종료
11/20(수)	2019 작은도서관 콘퍼런스 섹션 중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보고회 진행
11/30(토)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결과보고서 제출

강 북



경기북부



구 리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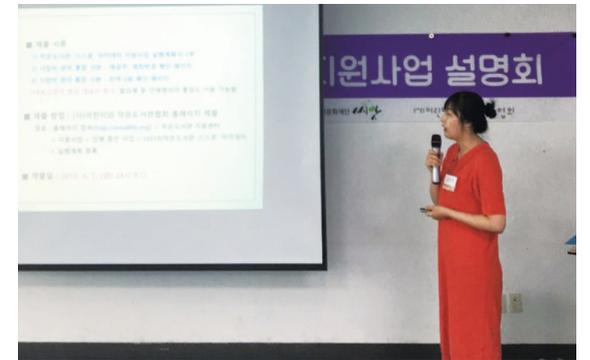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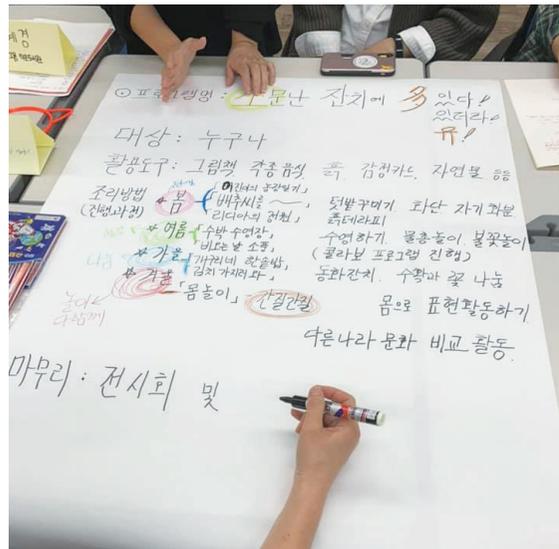


성북



스스로 선정자교육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선정사업 소개



- ▶ 서울_흥부네그림책도서관 외 47곳
- ▶ 서울_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 ▶ 서울_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 ▶ 경기_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30곳

- ▶ 경기_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 ▶ 인천_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외 3곳
- ▶ 대구_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47곳
- ▶ 울산_울산작은도서관협회

각각의 '스스로' 아카데미 선정 사업 말미에 실린 강의원고는 공개에 동의하신 일부 강사님들의 원고만 실렸습니다.



'스스로' 책 한 권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외 47곳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권역지기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아카데미'를 기획하여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통해 작은도서관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지부 작은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작은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안에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소중한 활동을 스스로 기록해보고 이 기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엮어서 '스스로 책 한 권'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배워보고자 사업을 기획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2016년 서울지부 포럼 이후 꾸준히 작은도서관 책활동을 공유해온 것을 이어가고자 한다. 2016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꽃, 인력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작은도서관 인력의 현실을 함께 나누었다. 2017년에는 '작은도서관의 꽃, 책'을 주제로 책의 선정과 전시, 배가, 독서활동들을 회원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 이용자와 함께 책을 읽기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였다.

2018년에는 '작은도서관과 책, 2018'을 주제로 2017년 포럼 이후에 각 도서관에서 활동한 사례를 나누며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활동을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자의 도서관에서 계속 이어가는 힘을 얻는 자리를 만들었다. 2018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으로 <그림책 깊이 읽기>를 실시하여 서울지부 회원들이 그림책을 철학, 역사, 문학, 예술을 접비하여 깊고 넓게 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후속 모임으로 <그림책 유랑단>을 결성하였다.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기록'을 주제로 작은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 기억, 활동들을 기록해보고, 이 기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엮어서 '스스로 책 한 권'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배워보고자 했다.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지원사업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스스로 책 한 권 2019

2019년 스스로 아카데미에서는 작은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기록 해보고 이 기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엮어서 '스스로 책 한 권'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구분	일시	내용	강사
강의	6월 14일 (금) 10:00-12:00	작은도서관의 기록 어떻게 하고 있나? (사례발표)	서울지부 회원
강의	6월 21일 (금) 10:00-13:00	작가들의 글쓰기 강의	홍승은 작가 (대표작-당신이 계속 불면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6월 28일 (금) 10:00-12:00	작가들의 글쓰기 강의	백승남 작가 (대표작-늑대왕 헛산, 루게미아 루미)
강의	7월 5일 (금) 10:00-12:00	이야기꾼에서 작가로, 출판 과정의 이해	위원장서 (말기책방 대표)
강의	7월 12일 (금) 10:00-12:00	책 한권의 구조, 내 책 상상하기	
강의	7월 19일 (금) 10:00-12:00	대미록 만들기, 대미록 발표와 토론	
강의	7월 26일 (금) 10:00-12:00	초고지 발표와 토론, 표지 만들기, 편집 등 이후의 과정	
강의	8월 23일 (금) 10:00-12:00	나의 책 발표 및 최종 합평	
	9월	인쇄하기	
	11월 초	출판기념회	

아카데미 대상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소속 작은도서관 운영자/활동자 약 25명
아카데미 장소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교육실 (마포구 월드컵북로 5가길 8-7)
신청 날짜 : 2019년 6월 7일~12일까지
신청 방법 : 서울지부 단체 특별으로 신청 (신청도서관명/신청자 이름/연락처)

주최: 1세대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 주관: 1세대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서울지부 | 협찬: 세도서문화재단 세이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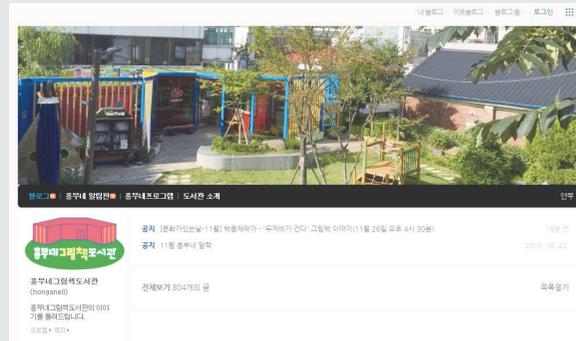
1. 스스로 아카데미 간담회

- 주제 : <작은 도서관 기록 어떻게 하고 있나?>
- 일시 : 2019년 6월14일 금요일 10시~12시
-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사무실
- 내용 : 작은 도서관들의 활동과 기록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록 되어지고 있는지를 사례 발표를 통해 알아보고 정보를 교환과 발전 방법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 사례 ① 흥부네그림책도서관

블로그와 밴드를 이용하여 기록을 저장해두고 있으며, 더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블로그 저장 한계와 밴드의 저장 기간 지정의 한계로 고민하고 있음.

- 블로그 :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주소: <https://blog.naver.com/hongane0>
- 밴드 : 흥부네그림책도서관



▶▶▶ 사례 ②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 소식지 발간 : 올해는 두 달에 1권씩 만들고 있음. 2003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68호 만들었음.

- 카페 : 2003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서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음.

- 주소 : <http://cafe.daum.net/eunhaengchildlib>

- 밴드 : 2013년부터 밴드에도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음

- 책 : 도서관 활동사진을 주로 담아 '찰칵 우리 그날 사진 에세이'를 만들었음.



▶▶▶ 사례 ③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 그림책 소식지 발간 : 3개월에 1권씩 제작하고 있으며, 밴드와 카페에 주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음, 오랜 기록으로 저장량이 많아 카페를 재개편 함

- 밴드 주소 : <https://band.us/band/68635329>
- 카페 : 오랫동안의 자료가 대부분 정리 되어 있음
- 주소 : <http://cafe.naver.com/littlelibro>



▶▶▶ 사례 ④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카페와 밴드를 이용하여 기록을 저장해두고 있으며, 구글 메일을 대표 메일로 만들어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문서와 사진의 저장과 여러 프로그램과의 연동에도 사용하고 있음, 어린이 마음 사전 등을 만들어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역신문에 보도 됨

- 밴드 주소 : <https://band.us/@achasanarenolja>
- 카페 주소 : <https://cafe.naver.com/achasanarenolja>



2. '스스로 책 한 권' 작가들의 글쓰기 강의

● 작가 : 홍승은

- 작가 소개 : 노래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사람. 여성혐오 사회에서 나고 자라며 몸에 깊이 밴 자기부정을 극복하기 위해 숨지 않고 말하는 법을 연습하는 중이다. 인문학카페 36.5°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먹고 살 방법을 궁리한다. 예술을 통해 각자의 언어를 찾는 일과 동물가족, 채식, 비혼 예술공동체에 관심 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신문』에 글을 연재한다.
- 대표작 : 당신이 계속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들 K-pop 스크린 광장 등

- 강의 일자 : 2019년 6월21일 10~12시
 - 강의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사무실
- 강의 제목 <서로의 상상이 되기 위해 몸으로 쓰기>**
1. 나는 왜 쓰는가
 - 글들의 역사
 - 나도 말합니다
 - 불확실하게, 더 조심스럽게
 2. 말씀이 아닌 이야기로
 - 글감내 일상과 감각에 권위주기
 - 표현주장하기보단 서로의 모습이 들어나게 맥락과 상황을 살린다
 -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보여주기
 3. 경험 해석 하기
 4. 언어의 힘과 한계 사이에서 망설이기
 5. 안전한 이야기 공동체를 만들자
 - 집필 공동체



● 작가 : 백승남

- 작가 소개 :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지만,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을 좋아하고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우리 이야기를 좋아한다. 아픈 마음 어루만지는 이야기, 힘없고 모자란 이를 품어 주는 이야기,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일깨우는 옛이야기가 참 힘이 세다 생각하고 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우리 옛이야기를 자주 만나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 대표작 : <이생규장전>(영혼의 수호신 바리공주)가 있고, <반지엄마> <늑대왕 핫산> 같은 동화책과 청소년소설 <어느 날, 신이 내게 왔다>(루케미아, 루미)를 썼다.

- 강의 일자 : 2019년 6월28일 10~12시
- 강의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사무실

강의 제목 <이야기가 시작 되는 곳>

강의 내용 - 작가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며 글감을 얻은 계기와 주제를 발굴하게 된 동기등을 진솔하게 담은 작가의 경험담을 듣고 작품등을 감상하였습니다. 강의 후 참석자의 질문을 받아 작가의 개인적인 소견과 인생관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내 삶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내 삶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 반지엄마
 - 푸름이가 사는 집
 - 상 할머니 이야기
2. 가족, 내 주변 가까운 인물들 이야기
 - 늑대왕 핫산
3. 특별한 체험, 특별한 공간
 - 루케미아 루미
 - 바리 공주
4. 여행지 혹은 낯선 그 곳 (여행에서 얻은 이야기들)
 - 떠버리 무당이와 수상한 술술씨
5.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 한뼘 그림책세월호 이야기
6. 기획 과 연대
 - 세상 읽기와 질문하기
 - 나의 슈퍼걸
7. 역사 퍼즐 채우기-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 부처를 만난 고구려 왕자

3. '스스로 책 한 권' 이야기에서 책으로

● 강사 : 위원석

- 강사 소개 : 유수의 출판사 편집장 역임,
강화도에 위치한 '딸기 책방'에서 독립출판과 서점을 운영하고 있음
- 강의 일자 : 2019년 7월 5일 10시~12시
2019년 7월 12일 10시~12시
2019년 7월 19일 10시~12시
2019년 9월 23일 10시~12시
- 강의 내용 : 출판 과정의 전체적 이해를 위한 강의와 함께 참여자들의 책 만드는 과정을 단계별로 스케줄화 하고 함께 협의 하여 완성 될 수 있도록 진행 하였습니다.

- 강의 일자 : 2019년 6월 21일 10~12시
- 강의 장소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사무실

강의 제목 <서로의 상상이 되기 위해 몸으로 쓰기>

1. 나는 왜 쓰는가
 - 글들의 역사
 - 나도 말합니다
 - 불확실하게, 더 조심스럽게
2. 말씀이 아닌 이야기로
 - 글감내 일상과 감각에 권위주기
 - 표현,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모습이 들어나게 맥락과 상황을 살린다
 -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보여주기
3. 경험 해석 하기
4. 언어의 힘과 한계 사이에서 망설이기
5. 안전한 이야기 공동체를 만들자
 - 집필 공동체

1. 출판 과정 이해

- 좋은 원고는 좋은 편집자를 만날 때 더 빛이 난다.
- 출판 결정 기준 : ① 의의, 가치, ② 영향력 ③ 실현성 재산성
- 편집 회의: 원고(작가)-기획안(편집자)-회의(편집, 디자인, 마케팅, 경영)

2. 출판 과정(편집 일정 중심으로 보는 출판 과정)

- ① 편집자 - ② 기획안 - ③ 편집회의 - ④ 개고의견 - ⑤ 초고 - ⑥ 원고지정 - ⑦ 재교 - ⑧ 삼교 - ⑨ 데이터하판 - ⑩ 홍보, 광고 - ⑪ 정리 업무

3. 책의 구성 요소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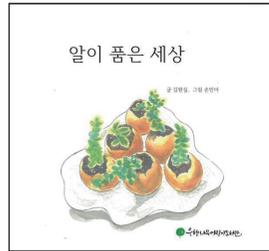
- 책 외부 구조와 명칭
- ① 표지 ② 본문 (내지) ③ 책등(세네카) ④ 면지 ⑤ 속표지 ⑥ 자켓 ⑦ 날개 ⑧ 띠지 ⑨ 머리띠 ⑩ 가름끈 ⑪ 책머리, 책배, 책발

- 본문을 구성하는 요소

- ① 표제지 ② 헌사 ③ 머리말 ④ 차례 ⑤ 본문 ⑥ 부록 ⑦ 색인 ⑧ 판권지



4. '스스로 책 한 권'- 우리가 만든 책 한 권



<김현실>

- 형식 : 그림책
- 제목 : <알이 품은 세상> 김현실 글, 손민아 그림
- 내용 : 도서관에서 식물을 가꾸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소재로 잡았어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튼튼한 마당 만들기 바자회를 할 때, '알이 품은 세상'이라는 화분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작은 화분을 한 개에 1,000원씩 주고 사갔어요. 그리고 남은 작은 화분은 마을 활동가가 '그 스토리를 살게요.'하고 사갔어요. 작은 다육이 한 개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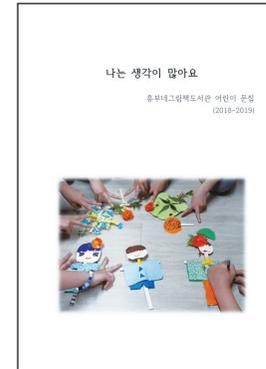
<김애경>

- 형식 : 에세이
- 제목 : <내게 말 걸어준 그림책>
- 내용 : 도서관에서 그림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읽고 알게 된 그림책을 개인적인 감상과 좋았던 감정을 담은 목록과 이 그림책들에서 받은 감상을 담아 정리해보자 하는 생각에 목록을 적고 감상을 적었습니다. 그림책이 왜 좋은지, 어떻게 읽었을 때 좋았는지 어떨 때 읽으면 좋을지 나름의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다른 분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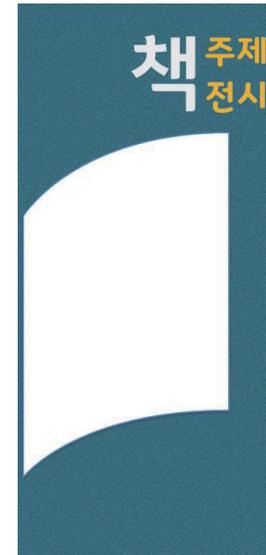
<안해나>

- 형식 : 자료집
- 제목 : <어느 날, 이 곳에>
- 내용 : 은행나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별바라기' 동아리 모임에서 진행한 책놀이터 10년간의 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책을 읽어주었는지, 10년 동안 친구들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인지도 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도서관이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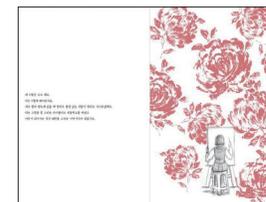
<이남지>

- 형식 : 문집
- 제목 : <책이랑 글이랑 함께 달려요.>(부제—흥부네그림책도서관 동무들 문집)
- 내용 : 책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쓴 글은 아이들의 성장기록입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문집을 만듭니다.



<김미선>

- 형식 : 자료집
- 제목 : <책 주제 전시>
- 내용 : 작은도서관 웃는책에서 진행했던 주제 전시들의 목록과 내용을 담아 정리 하였습니다.



<오현정>

- 형식 : 그림책
- 제목 : <로즈 이야기>
- 내용 : 여자에서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사는 우리 주변의 로즈들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윤미선〉

- 형식 : 에세이
- 제목 : 〈설탕이 녹는 시간〉
- 내용 : 일상에서의 소소한 감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조영아〉

- 형식 : 그림책
- 제목 : 〈내 아이는 어디쯤〉
- 내용 : 4학년인 아들을 바라보며 어느 순간 대화가 아닌 잔소리만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장인혜〉

- 형식 : 그림책
- 제목 : 〈너 나 우리 도서관〉
- 내용 :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의 이전 과정을 통해 느낀 것들을 그림책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활동가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이렇게 만든 책들을 작은도서관에 순회전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서울지부 도서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고, 책을 만들었던 경험은 각 작은도서관에서 또 다른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작은도서관 ‘스스로 책 한 권’을 기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해보니...

① 작가들의 글쓰기 강의의 흥승은, 백승남 작가님 강의 들은 소감

안-페미니스트 흥승은 작가 강연은 평소 들었던 페미니스트들의 강연과 달리 조용하면서도 울림이 있었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글을 쓴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교육에서는 글은 잘 써야한다는 엄매임이 있었는데 작가 강연을 통해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잘 쓰는 글 대신 솔직함과 진정성을 담은 글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해줬어요. 고마웠어요.

백승남 작가님은 작가님의 작품을 토대로 이야기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신게 유용했어요. 작가님의 작품으로 설명해주시는데 참 골고루 작품을 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품을 설명해주실 때 상상력 많은 작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릴 적 작가들은 상상력이 좋아 글을 쓰는 줄 알았는데 커보니 엄청난 자료조사에 노력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백승남 선생님은 기본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상상력도 많은 분 같아서 어릴 적 꿈꾸던 작가를 만난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남-두 분 작가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삶이 어떻게 글에 녹여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글은 어찌 태어나는지도 보고요.

글쓰기, 어렵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때 가장 감동적인 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좋은 강의였습니다.

안-흥승은 작가님 책은 읽으면서 깜짝 놀랐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책이 될 수 있구나..... 물론 어떤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개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절반인 여자를 대변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드러낸 작가님의 용기는 지금도 놀라고 있어요.

덕분에 책을 만들 때 ‘내 이야기가 쓸 가치가 있을까?’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은 조금 덜게 되었어요. ‘내가 하려는 이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쓸 가치가 있겠다.’라고 조금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백승남 작가님 책은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은 이런 계기로, 이 책은 또 이런 계기로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작가들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지?' 라고 항상 궁금했는데,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백승남 작가님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내신 거였어요. 그런데 '똑딱!' 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덕분에 제가 지금 70여 페이지의 책을 만들며 이렇게 잡았다 났다. 잡았다 났다 하는 이 과정도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위로하고 있어요.

은-글쓰기는 누군가의 공감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글을 쓴 자신도 위로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작가란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정-홍승은 작가님과 백승남 작가님의 강연을 통해 삶 속의 체험적 글쓰기에 대해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 글쓰기는 결국 인생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② 위원석 선생님 강의 참여 소감

혜-[딸기책방]을 강화에 가면 꼭 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책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가르쳐 주셨어요. 참 급했고, 참 준비도 덜 되었고, '그냥 만들면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들으며 그래도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었어요. '책은 그냥 만들어 지는 게 아니었네.' 라고 또 한 번 생각했구요.

매 강의마다 자신감이 줄었다가 다시 조금 생겼다가의 반복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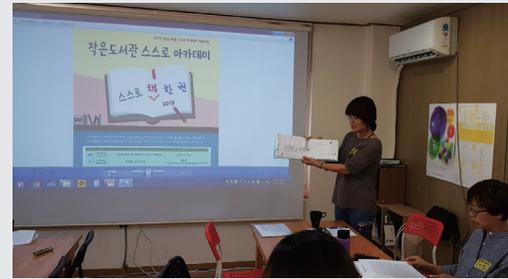
머리말, 목차 강의 때 써 둔 덕분에 방향 잃지 않고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장-출판계에서 일하신 분의 실제 강연이어서 현 출판계를 아는 재미가 있었어요. 친절한 강의와 참여자들의 작품에 쏟아주신 칭찬에 다들 힘을 얻었어요. 나중에 방학이랑 겹쳐서 수업에 빠진 게 죄송했어요. 딸기책방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은-먼 곳에서 매주 달려와 주신 선생님께 감사했어요.

친절하시고 편안한 분위기로 강의를 이끌어주셔서 부담가득이었던 저 또한 편히 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북큐레이션을 배우다

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스스로 아카데미 강북모임에는 강북구에 있는 작은도서관 함께놀자, 책읽는마을 북카페, 마을꿈터, 밝은, 책이랑놀자, 우리동네, 번동 새마을문고, 삼양동새마을문고가 참여하고 있다.

인수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는 2010년에 같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이 만든 책모임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방 두 칸인 가정집에서 시작한 작은도서관입니다. 동네사람들이 주인이고, 운영진이고 선생님이고 재능기부도 하는 마을거점공간으로 책읽기모임, 기타동아리, 마을배움터, 방학교실,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는 2002년에 주부들이 모여 마을에서 내 아이들이 마을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읽는 공간이 아닌 마을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책, 문화 프로그램 및 마을 공동체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으로 지역주민들·지역단체들과의 유대관계 및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밝은 작은도서관'은 삼각산동이 재개발되기 전부터 마을이 달라진 것을 지켜본 도서관입니다. 주변이 한창 공사 중일 때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지금은 마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성장하고 있고 독서동아리와 우쿨렐레 모임 등을 통해 마을공간의 역할과 지역내 작은도서관 운동의 씨앗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패산마을공동체마을-꿈터도서관'은 송중초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송중초, 화계초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며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과 엄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소모임 운영합니다. 책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모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읽는마을 북카페'는 2012년에 유희공간을 우리동네 북카페로 조성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1층 정보검색대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마을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읽는마을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쉼터와 힐링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문화예술공연, 아이들, 청소년, 성인들의 마을배움터 공간 그리고 다양한 재능을 나누는 재능

나눔터가 되어왔습니다

또, 번동에 위치한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은 교회에서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독서프로그램과 강북구 혁신교육사업인 틈새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계기

작은도서관에서 활동하면서 북트레일러, 하부르타 토론, 비경쟁토론, 글쓰기, 북아트, 발도르프 교육 등 독서와 관련된 강좌를 직접 열거나 좋은 강좌가 있다고 하면 들으러 다녔다.

관심이 있던 북큐레이션은 2018년에 '작은도서관 함께놀자'에서 2회기를 준비해 들었고, 2019년에 도봉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 강좌를 진행해 수강을 했다.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었지만 미진했고 좀 더 공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작년에 책친구 사업에 지원하면서 연계가 되었다.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은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올 해에는 북큐레이션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고민을 하였다. 몇 년간 알고 지내는 강북에서 도서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권유하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도서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다. 망설이는 분에게는 사업에 지원한다고 꼭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다. 이 분들과는 구립과 작은도서관 월례회의에서 오래 만나 왔지만 구립지원으로 작은도서관 책축제를 1회 같이 한 경험 외에는 뜻을 모아서 같이 활동한 적이 없다. 이런 자발적인 모임을 하면 공부도 하고, 서로 친해지고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전국 단위로 뽑는 사업이라 선정되고 나서 모두 기뻐했고 어깨가 으쓱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스스로 아카데미
-다섯개 작은도서관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북큐레이션-
(6월말~10월말)
1. 한달에 2회 모여 북큐레이션 관련 책 읽고 공부하기(각주 월요일)
2. 선생님께 배우기-강좌2회/ 워크샵2회
"안정희 선생님" (8/12, 8/19, 9/2, 9/9 총 4회)
-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하다" 저자
- 노티나무도서관재단 기획교육성명이사
3. 도서관 탐방(4개소변동 가능)
-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
- 천일 어린이 도서관
- 아크연북
- 청운문학관

스스로 아카데미 북큐레이션 강좌
도서관에서 연애하다
책과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 강사: 안정희
● 일시/장소: 1차시_8월 12일(월)10시 / 2차시_8월 19일(월)10시
● 대상: 성인
● 장소: 송은문 도서관(마포로터부근)

- 공부모임 : 6/24(월), 7/22(월), 8/5(월) 오전 10시~12시
- 북큐레이션이 특화된 작은도서관 탐방 3회
 -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7/2)
 -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8/28 수)
 - 꿈터작은도서관(10/10 목)
- 북큐레이션 강좌 2회 : 8/12(월), 8/19(월), 강사 : 안정희
- 북큐레이션 워크숍 2회 : 9/2(월), 9/9(월), 강사 : 안정희
- 북큐레이션 기획준비 모임 3회 : 9/23(월), 10/7(월), 10/14(월)
- 북큐레이션 전시
 -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 - 10/19(토), 수유일공원, 백희나 작품 전시 및 책놀이
 - 우리동네작은도서관 - 10/21(월) ~ 10/31(목), 백희나 작품 전시 및 책놀이
 - 작은도서관함께놀자 - 10/25(금) ~ 10/31(목), 음식을 주제로 그림책, 성인책 전시
 - 좋은맘 작은도서관 : 10/21(월) ~ 10/31(목), 물고기 관련 그림책전시 및 책놀이
- 마무리 간담회 1회 : 활동 소감 및 평가와 이후 계획 논의, 10/30(수)



스스로 아카데미 강북모임은 주제가 북큐레이션이다. 모임원 중에 북큐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분이 많고, 강좌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먼저 책으로 공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듣기로 했다. 책은 작은도서관 북큐레이션 관련 책을 후보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의견을 나누어 결정했고, 바쁜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한달에 한권을 읽고 모여서 생각을 나누기로 하였다.

였다.

사업 시작인 6월은 작은도서관을 알자는 의미에서 따끈따끈한 박소희 선생님의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을 읽었다. 직접 듣기 위해 강연회에 참여해 사인 받아온 선생님도 있다.

7월 책은 충북 괴산에서 "숲속작은책방"을 운영하는 백창화, 김병록선생님이 쓴 '작은책방, 우리 책 짬 팝니다!'이다. 이곳을 북큐레이션 탐방지로 추천받았는데 당일로 갔다 오기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의 이유로 책으로 만나기로 했다.



작은도서관' 탐방으로 두 곳은 거리가 멀어 좀 힘들었지만 바쁜 와중에도 흔쾌하게 시간을 내주신 도서관 선생님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책 토론과 북큐레이션 워크숍까지 마치고, 참여한 도서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북큐레이션을 기획, 전시하기 위한 모임을 9월부터 10월에 3회 가졌다.

'작은도서관 책이랑놀자',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삼양동 새마을문고' 선생님들이 10/19(토)에 수유일공원에서 열린 수유1동 마을축제에 참여해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을 전시하고 책놀이를 진행했다. '우리동네 작은도서관'도 10/21(월)부터 10/31(목)까지 백희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책놀이를 진행했으며, '좋은맘작은도서관'은 물고기 관련 그림책을 10/21(월) ~ 10/31(목)까지 북큐레이션했다. '작은도서관 함께놀자'는 음식을 주제로 성인책과 그림책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마을꿈터 도서관'는 미니멀리즘을 주제로 책을 전시하고 북큐레이션을 본 이용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정리하고 버릴 물건을 결정해 이름을 적어 넣는 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8월은 마이클 바스카 저 '큐레이션'이다. 이 책은 경제/경영서 분류되며 큐레이션을 "과감히 털어내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변화를 알아야 해서 사회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는 큐레이션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선택했다. 내용이 많아 읽을 분량을 각자 나누어 맡았지만 어려운 용어, 역사적 사실, 여러 분야의 큐레이션 사례 등이 있어 완독하기 힘든 책이었다.

8월은 북큐레이션의 개념, 북큐레이션 방법론과 사례 등을 배우는 강좌를 2회하고, 9월에는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북큐레이션을 기획하기 위해 강사님과 워크숍을 2회 진행했다.

또, 공부를 하면서 이론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로 보기 위해 북큐레이션이 특화된 작은도서관을 3회 탐방하였다. 7월은 오류동에 있는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 8월은 성동구에 소재한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10월은 성북구에 있는 '꿈터

앞으로 우리는

모임은 유지하기로 모두 찬성했고 한 달에 한번 만나기로 했다. 무엇을 할 것인지는 그림책 공부와 서로간의 친목도모, 다른 주제를 정해 공부하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계기로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만났으면 하고, 이왕이면 작은도서관협회도 만들고 서로에게 지지와 위안이 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

“드디어 북큐레이션을 배우다.”를 함께한 소감

북큐레이션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우리 도서관에서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이 모임. 4개월 동안 15차례의 다양한 만남을 가지면서 (공부모임, 탐방, 강좌, 준비모임 등)이렇게 자주 도서관 샘들을 만나니 힘은 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북큐레이션을 주제로 정한 3권의 책을 통해서 다른 도서관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다른 지역 도서관을 탐방하면서 부럽기도 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나의 역할은 어떠한지 나를 돌아켜 보기도 했다.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한 북큐레이션을 안정희 강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잡아가며, 책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점이 좋았다. 더 좋았던 점은 다른 도서관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질감, 친밀감이 생겨났다고나 할까? 우리는 그동안 일로만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싶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림책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다.



힐링워크숍

서울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는 작은도서관 운동과 지역문화운동을 펼치며, 회원들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 조직 되었고 지금까지 교육, 문화, 돌봄 등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독서문화운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회 성북 마을책잔치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지역주민을 위한 책잔치를 이어오고 있으며, 책 읽는성북 활동 중 어린이 책 중심의 책모꼬지 주최로 마을독서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중심으로 마을 독서문화활동(책읽어주기, 책놀이, 좋은 책 목록 나눔, 작은도서관 책 활동, 독서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독서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장된 활동가 자원인 '마을책문화지원단'을 조직구성 하였고, 종암, 월곡, 정릉□길음, 장위□석관, 돈암□보문의 5개 권역 마을 독서문화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북의 40여개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이 되고자 독서문화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교육사업 (아띠교육,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가 아카데미, 북스타트), 문화사업 (책잔치 및 책모꼬지, 독서문화만들기 프로젝트, 찾아가는 나눔 서포터즈, 연합토론, 돌곶이 학교, 책친구), 돌봄 및 복지사업 (독서멘토링, 도서관이 키우는 아이, 작은도서관코디네이터) 등이 있습니다.

2011.04. 성북마을 책잔치 준비위원회 1차 모임 2011.05.28. 1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
 2011.06.17. (가)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발기인 구성(작은도서관4, 비영리단체1)
 2011.10.09.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북 페스티벌 참여
 2011.12. (가)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대표 선출,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출범
 2012.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회원가입
 2012. 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2개소(아름드리도서관, 달맞이도서관)
 2012.04. ~ 2013.02. 독서멘토링 사업 진행(청덕초, 송곡초, 장위초)
 창립총회, 김미희 1대 대표 취임
 2012.06.02. 2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성북구청바람마당)
 2012.09. '책 읽는 성북 하나 되는 성북' 북 페스티벌 참여
 2013. 함께하는 성북마당 회원가입, 3, 4, 5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
 성북구 민간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간담회 진행
 2013.~2018. 성북구사립작은도서관실태조사(문화체육과+작도넷)
 2013.04. ~ 2014.02. 교육복지협력사업 독서멘토링 사업 진행
 (청덕초, 송곡초, 장위초, 장월초, 장곡초, 석관초, 송덕초)
 2013.12. 제 1차 정기총회 개최
 2014.04. ~ 2014.12. IBK 휴먼네트워크 독서멘토링 진행
 2014.04. ~ 2014.12.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사업 진행('동아리로 화합하는 마을')
 2014.04. ~ 2017.12. 책친구 사업진행
 (C&M 사회공헌기금사업 4개 지역아동센터 독서프로그램 운영)
 2014.05. ~ 2014.12. 교육우선지구 성북구 특화사업
 '우리마을도서관과 함께 하는 틈새교육돌봄' 운영 진행
 2014.11. 6회 성북마을책잔치 진행, 작은도서관책소풍 진행(총20회)
 2014.12.05. 제 2차 정기총회 개최, 안혜영, 허현주 2대 대표(공동) 취임
 2015. 도통아리활동(성북문화재단)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체계 구조화
 2015~ 2016. 여성중앙MOU체결(전래놀이, 환경)
 2015~2018. 동덕여대 자원봉사자 연계
 대학생 봉사자 교육 및 작은도서관 봉사 연계 운영(3년)
 2015~2017. 아띠교육-작은도서관활동가양성
 2015~2018. 북스타트 연계(성북문화재단)
 2015.04 '누리보듬사'교육 공동주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에듀덕터바른배움)
 2015.01. ~ 2015.12. 혁신교육사업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교실 진행
 2015.03.23. 마을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과제, 활성화지원 방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
 2015.04. ~ 2015.11. 성북구마을만들기사업 진행(마을책문화지원단-작은곰자리)
 2015.05. ~ 2015.12.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교실 진행
 2015.05. ~ 2016.02. 성북교육복지협력사업 경계선아동 지원사업 협력운영
 2015.09.12. 7회 성북마을책잔치 개최
 2015.12. 8회 성북마을책잔치 개최
 2015. 정든마을주민운영위원회 협약체결(작은도서관설립)
 2015.12.04. 제 3차 정기총회 개최

2016.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안정을 위한 대책마련 간담회
 2016.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가입
 2016.06 '어깨누리' 경계선아동, 느린학습자 교육 공동주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에듀덕터바른배움, 교육복지센터)
 2016.~ 갑을공작모임(구립도서관+사립작은도서관)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체계 구조화
 2016.~2017. 성북구 책모꼬지 어린이책 부스운영
 2016.~2017. 참길음운영회의 참여(길음뉴타운+길음종합사회복지관)
 2016.04. ~ 2016.06. 제4회 유럽단편영화제 공동주관(꿈길제작소, 성북문화재단)
 2016.05~ 장위동 틈새돌봄교실 운영위원회 참여
 2016.04. ~ 2016.10. 성북구마을만들기사업 진행-작은곰자리('도서관이 키우는 아이')
 2016.07. ~ 2016.12. '시시콜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사업 진행
 2016.12.02. 제 4차 정기총회 개최, 김정숙 3대 대표 취임
 2017.~2018. 다문화돌봄이학교 지원(성북문화재단)
 2017. 제1회 담비맘 교육 공동주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정든마을주민운영위원회)
 2017.04. ~ 2017.11. 성북구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연합사업('책맛나네')
 2017.07.14. 정든마을작은도서관 개관(마을시설 내 작은도서관 설립 및 공동운영)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서 만든 1호 도서관 및 사무국)
 2017.11.~12. 마을사서교육 운영(성북구평생학습관, 동덕대학교 연계)
 2018.02.~12. '폼생폼사' 중학생 책토론동아리 공동주관(성북교육복지센터)
 2018.02.07. 제 5차 정기총회 개최, 김은경 4대 대표 취임
 2018.05.01. 임시총회 개최, 김은하, 장동희 5대 대표(공동) 취임
 2018.07.~12.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단 활동(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구조 마련)
 2018.07.27. 한성대학교 협약식
 2018.08.08. 성북문화재단 협약식
 2018.09.06. 제2회 담비맘 교육 진행
 2018.9.15. 성북구 책모꼬지 어린이책 운영("악당이 사는집")
 2018.10.~11.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가 아카데미운영(성북구평생학습관 연계)
 2018.10.26. 공론장 개최(함께하는 성북마당 연계, "지역사회내에서의 작은도서관의 역할")
 2018.11.26. 정릉새일하기센터 MOU체결
 2019.2.08. 제6차 정기총회 개최
 2019.02~ '폼생폼사' 중학생 책토론동아리 공동주관(성북교육복지센터)
 2019.06.1. 제9회 성북 마을책잔치("색다른재미잔치" 길음동) 개최
 2019.07.08. 스스로 아카데미 "힐링워크숍" 진행 (강릉)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회원현황>

성북지역 내 작은도서관 15개소, 단체1개, 개인회원 4명, 후원회원 1명 (2019.6 현재)

저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에는 15개의 사립작은도서관 회원과 1개의 단체회원, 4명의 개인회원과 1분의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15년 이상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신 분들부터 이제 막 도서관을 시작한 분들까지 다양한 경력과 기간을 가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처음 도서관을 사랑하고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정신없이 진행하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내가 작은도서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이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며, 내가 왜 작은도서관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와 그 뜨겁던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만나게 된 스스로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는 우리가 정말 작은도서관 활동을 계속 하고 싶은 이유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개인으로서의 나를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십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힐링아카데미의 주제 “우리는 왜 작은도서관인가?” 하는 물음을 통해 진정 내가 하고 싶은 작은도서관과 그것을 통해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나를 만나며, 그래도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을 다잡고 다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하고자 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벗어나 짧지만 의미 깊은 하루 동안의 일탈과 힐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힐링워크샵 진행내용〉

일 시	내용(구체적인 강좌명, 형식 등)	강사 혹은 진행자
7/8 장소 : 강릉경포대, 안목해변, 커피거리, 동화가는	1. 강의명 : 나는 왜 작은도서관인가? 2. 형식 : 워크숍 3. 강의 내용 :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마음나누기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정체성 작은도서관을 20년간 운영하며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김미희 -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문 - 정든마을 도서관운영자 - 성북구 마을활동가

〈힐링워크샵 현수막〉



왜 작은도서관인가?

김미희(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문)

국가적으로 끊임없이 국민들의 삶에 독서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교육과 맞물려 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에 힘써 왔습니다. 최근 도로와 철도 등을 짓는 기존의 전통적인 SOC가 아니라, 생활 SOC로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 등을 확충하는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개념을 도입해, 노후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을 짓는, 이른바 '도서관 SOC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단체들은 개인과 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골목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과 밀착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세워진 작은도서관들은 책읽기를 기본으로 돌봄, 마을배움, 동아리, 책놀이 등 사회적 공간으로서 역할과 노력을 이어오며 공동체의 핵심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역할에 대해 국가로부터의 사회적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왜 작은도서관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작은도서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존재가치

첫 번째, 스스로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책을 읽고 그 맛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로 만남의 시간과 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지요. 출발이 다소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스스로의 의지가 없이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책과 사람,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점차 사회적 관계 속에 생겨나는 필요와 욕구를 바탕으로 놀거리와 나눌 거리를 챙기며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으로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자발성이 주인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인정받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스스로의 도전과 행복이 중심에너지가 되어 움직여진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자본과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스스

로의 길이기에 억지로가 아닌 저절로 채워짐을 느끼곤 합니다.

책을 읽고, 빌려주는 곳으로의 역할로부터 지역사회 책문화 활동을 통한 아이와 어른, 지역주민들의 행복 지원 센터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까이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중심되어 골목골목에 위치한 생활밀착형으로써의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웃한 사람들 간의 책을 통한 관계맺음으로 소통의 다리가 되어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가까이 있게 합니다.

설립자, 운영자, 이용자 누구라도 자리를 넘나들며 함께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뒤섞임이 가능한 곳입니다. 생활권 가까이 있기에 간편한 차림과 특별한 준비 없이도 잠시 짬을 내어 들락날락 거리며 말을 섞고 마음을 섞어가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곳이기에 좋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마을 만들기, 부모커뮤니티, 품앗이, 도시재생, 마을 네트워크 등의 이름으로 삶의 장소에서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도서관은 이미 마을에서 책을 통한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따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른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책을 읽다가,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은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참여형 활동들을 통해 발견과 해결의 장이 펼쳐집니다. 작은도서관은 토론이 살아있는 민주적인 현장으로서 생동감 있는 공동체의 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자산

작은도서관으로 마을에 자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책과 사람과 공간이며 함께 나누고 누리는 문화로 채워질 때 완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더라도 책은 작가가 세상 모두에게 거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읽는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재미와 감동이 되어 다른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책읽기의 장에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토론으로 넓고 깊은 거침없는 이야기가 나뉘는 수가 더욱 많습니다. 이 같은 소통의 과정에서 지식은 물론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한 나뉘지

고 공유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설립자, 운영자, 이용자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살아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제도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현재 전국적으로 6천개가 넘는 작은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소유가 아닌 공유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지닌 작은도서관으로서 작동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붙들고 가야 할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성

책이 내는 소리를 즐기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죠. 누구라도 함께 책 맛을 보자고, 이웃을 초대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즐기며 지냈어요. 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움직이는 작은도서관이 되어 이웃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책을 만나고, 그 곳에서 이웃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다시 책을 찾아 작은도서관으로 걸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었더라? 무엇이 그런 결과를 낳았나? 왜 그렇게 되었나? 그 때 누가 있었지? 언제 하면 좋을까?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은 어떤 곳이었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읽은 책의 감동들은 지금 필요한 지혜로 맘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또 책에 손이 갑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정해진 주체와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토론과 재미삼은 활동을 시작으로 책을 만나기도 하고, 책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주인되어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즐기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작은도서관은 역할에 따라 많은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공간에서 책과 함께 즐기던 활동에서 느끼게 되던 자연스러운 감동이나 효과에 대한 덧이름과 같습니다.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등의 분야에서는 주민을 주체로 등장시키기 위한 목표로 주민과 단체 중심의 사업이 기획되고 이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작은도서관 또한 기존의 책과 사람과 활동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계획하여 적합성에 따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빌려주고 읽는 정보 부분에 치중된 단편적인 역할을 도서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러

한 작은도서관의 마을사업 활동 참여를 보면서 도서관 활동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활동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과 삶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강아지똥을 쓰신 권정생 작가님은 쓰시는 창작동화를 그냥 사는 이야기라고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 시간 시간들의 모습과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책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웃고 울고 떠들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우리 서로는 만나서 감동, 지혜 등등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이제 그 이름이 무엇으로 불리는 활동이든 작은도서관에서의 활동은 책으로 성숙된 시작과 과정과 정리가 맞물려져 돌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맙시다.

작은도서관이라는 책제목 안에 마을에서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채워갑시다.

“힐링워크숍”과 함께한 소감

워크숍을 마치며 우리들 스스로 참여 후기를 각자 남겼습니다. 바라는 점, 아쉬운 점, 참여 한 소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라는 점으로 첫째 마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둘째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소통과 연대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잘 했으면 한다. 셋째 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하고 제시하는 조직과 활동가들이 많아져 자유롭게 자리를 비울 수 있길 바란다.

아쉬운 점은 첫째 아카데미 일정이 당일이다 보니 서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경기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30곳



둘째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진행했으면 한다. 셋째 작은도서관의 노하우와 장점을 체계화 하고 모델화 하여 전달하지 못해 아쉽다.

참여 한 소감은 첫째 처음 참여 하는 활동인데 친근감 있고, 허물없이 솔직한 모습이 좋았어요. 원래 인간관계는 함께 먹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깊어지는데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둘째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운영진의 고민과 애써 주심이 하루종일 느낄 수 있었어요. 셋째 일과 회의가 아닌 쉼과 여유로움이 함께한 하루여서 좋았어요. 일에 쫓겨 돌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 도서관 선생님들과 대화 나누며 도서관을 하는 나를 돌아보고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넷째 '힐링'을 주제로 한 스스로 아카데미 나는 왜 작은도서관을 하는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열악하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작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았어요. 크기, 양이 작을지 모르지만 정성과 마음은 결코 작지 않아요.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이기엔 오늘에 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우리의 작은 시간 속에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고양 파주 부천 지역의 7개 작은도서관과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단체 회원도서관으로 구성된 경기북부 지부는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회원도서관으로 도서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책 문화 관련단체들과 협력, 도서관정책에 대한 활동도 열심히 하는 작은도서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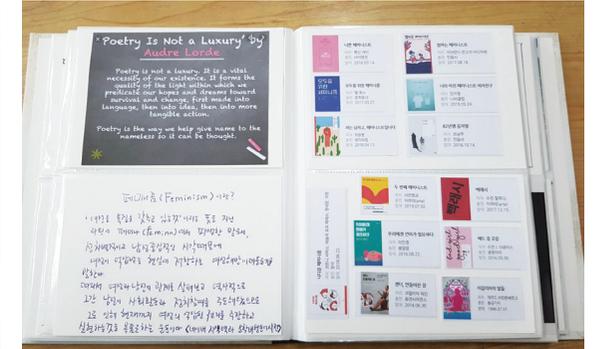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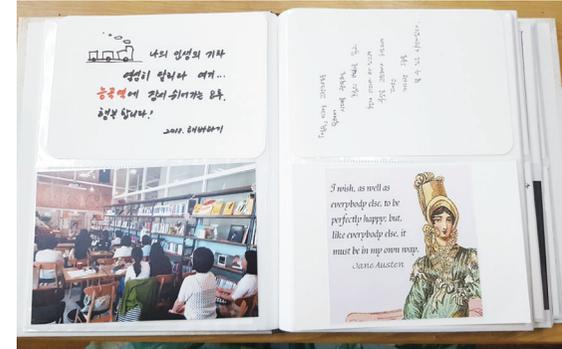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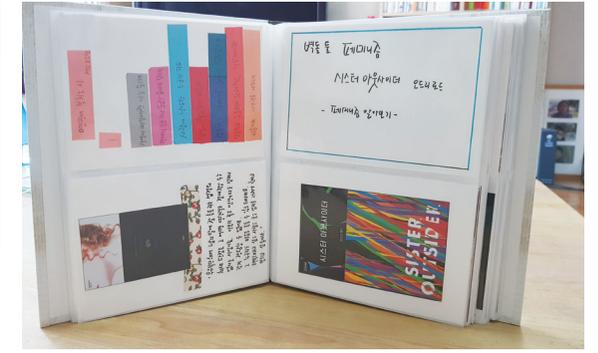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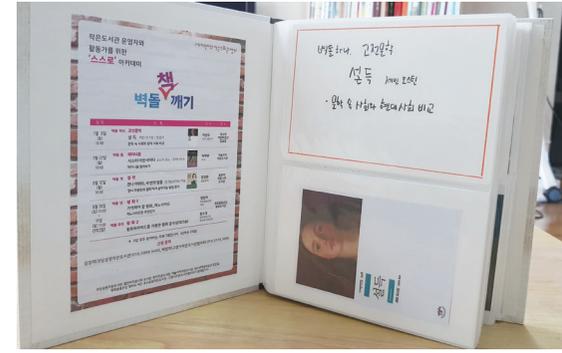
그동안 작은도서관 운영자나 활동가들을 위한 많은 교육을 들으며 큰 매력을 못 느꼈고 매번 비슷한 내용의 교육에 피로감을 느끼던 경기북부지역 작은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 사람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스스로 기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한다는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계기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교육은 무얼까 논의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키워드들을 꺼내서 관련된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각자 자기 도서관에서 인문학이나 책 관련 강의를 기획해 이용자들에게 소개하거나 개인적으로 강의를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듣고 싶은 강의를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해 보는 기회는 흔치 않았다. 새로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자신들이 활동하는 도서관에서 공부한 내용을 펼칠 수 있고 도서관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듣고 싶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보았다. 평소 어렵게 생각되었거나 혹은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주제의 책들을 골라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벽돌책' 깨기' 라는 제목으로 각자 듣고 싶은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1) 벽돌책 깨기 1강 [고전문학 제인오스틴 읽기 - '설득' 읽고 강의듣기]

'문학은 시대를 담는다.'는 담론은 그 시대에만 유효한 것인가?를 화두로 고전문학 한 편을 읽



고 그 시대와 현대 사회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2) 벽돌 책 깨기 2강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강의와 워크숍 진행]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뭔가 불편하다 그렇지만 알아보고 싶은 욕구를 담아 본다.

(3) 벽돌 책 깨기 3강 [‘한나아렌트의 삶과 저술, 전체주의의 극복’ 강의]

한나 아렌트를 책을 읽은 후 강의를 통해 한나 아렌트의 철학을 이해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 나눈다.

(4) 벽돌 책 깨기 4강 [‘기억해야 할 평화 제노사이드’ 강의]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인간은 언제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 그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알아보는 시간 갖는다.

(5) 벽돌 책 깨기 5강 [‘평화피라미드를 이용한 평화 감수성’ 워크숍]

제노사이드를 통해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해 본다.

총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형식을 달리해 구성한 강의와 워크숍은 원하는 도서관에서 돌아가면서 진행하여 사전 신청자들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 이용자들도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매 강의 시간마다 강의 준비나 강사와의 소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였고 전체진행과, 회계담당, 홍보를 위한 웹자보 제작 등 담당을 나누어 맡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육이라는 책임의식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벽돌책 깨기’는 쉽게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책을 함께 읽는 다는 것 이상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고전을 통해 그 시대를 다 읽어 내거나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페미니즘, 전체주의, 평화, 제노사이드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단 한 번의 강의로 모두 알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길을 찾아야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벽돌에 금이 가게 한 것 같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의를 들은 회원도서관 중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에서는 벌써 여성작가가 쓴 고전 읽기를 시작했다. 스스로 기획하고 함께 공부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도서관사람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준 스스로아카데미 교육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

한나 아렌트의 삶과 저술, 전체주의의 극복

- 위험한 사랑, 위험한 사상을 밀고간다

김경윤 인문학자, 작가

아이히만을 당대의 엄청난 범죄자로 만든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순전한 '생각 없음(thoughtlessness)'이다.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더욱이 행위는 정치적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멸성(mortality)이 아닌 탄생성(natality)은 정치적 사상의 핵심
범주가 된다.
- 《인간의 조건》

■ 아렌트 연보

1906년 (0세) : 10월 14일 독일 하노버 근교에서 기술자 파울 아렌트(Paul Arendt)와 부인 마르타 아렌트(Martha Arendt) 사이의 외동딸로 태어나다. 출생증명서의 이름은 친할머니의 이름을 따라 요한나 아렌트(Johanna Arendt)이다. 양친은 모두 쾨니히스베르크 출신의 유대인이다. 아렌트는 “전형적인 동화된 독일-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1909년(3세) : 쾨니히스베르크(이 도시는 그가 존경한 선구자 이마누엘 칸트의 고향이었다)로 이주하다.

1913년(7세) : 할아버지 막스 아렌트가 사망하고, 오랜 투병 끝에 아버지 역시 사망하다. (어머니 아

르타 아렌트는 1920년에 클라라(Clara)와 에바(Eva)라는 두 딸이 있는 홀아비 마르틴 베어발트(Martin Beerwld)와 결혼했다.)

1913~1924년(7세~18세) : 쾨니히스베르크와 베를린에서 학교에 다니다. 부분적으로는 독학을 하기도 하고, 대학교 행사에도 참석하다.

1924년(18세) :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대학입학자격(Abitur)을 획득하다.

1924~1928년(18세~22세) : 마르부르크 대학교, 푸라이부르크 대학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철학(주전공), 개신교 신학, 그리스 문헌학을 공부하다. 마르틴 하이데거, 에드문트 후설, 카를 야스퍼스, 루돌프 볼트만, 마르틴 디벨리우스 등의 교수를 만나다.

1928년 11월(22세) :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카를 야스퍼스의 지도 아래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다. 박사학위 논문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의 사랑 개념》(1929년 출간)이다.

1929년 9월(23세) : 베를린 노바베스에서 귄터 슈테른(Gunther Stern, 필명은 귄터 안더스)과 결혼하다.

1930~1933년(24세~27세) : 자유 작가로서의 첫 작품은 “라헬 바르하겐의 예에서 본 독일-유대인의 동화의 문제”에 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다. 독일 학문 조성 단체(1930~1931), 유대인 기구(1932)의 지원을 받다.

한나의 첫 번째 탈출

1933년 7월(27세) : 베를린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독일에서 탈주하다.

한나의 두 번째 탈출

1933~1940년(27세~34세) : 파리에서 거주하다.

1933~1937년(27세~31세) : 시온주의 정치활동을 하다. 1935년에는 팔레스타인에서 3개월간 체류하다.

1936년 봄(30세) : 하인리히 블뤼허(Heinrich Blücher)를 만나다.

1937년(31세) : 독일 국적이 박탈되다. 귄터 슈테른과 이혼하다.

1937~1938년(31~32세) : 학문적 작업을 다시 시작하다. 학위 취득 후 시작한 라헬 바르하겐에 관한 책을 완성하다.(영어판 출간은 1958년, 독일어판 출간은 1959년). 반유대주의의 역사에 관한 작업을 시작했으며, 강연활동도 병행하다.

1938~1940년(32~34세) : 1938년 독일에서 일어난 유대인 학살 이후 다시 사회 활동에 복귀하다. 활동 과제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유대인 단체 및 시온주의자들과 협동하여 중부 유럽에서 유대인을 이주시키는 작업이었다.

1940년 1월(34세) : 하인리히 블뤼허와 결혼하다.

1940년(34세) : “적대적 외국인”으로서 남프랑스의 구르(Gurs) 수용소에 5주간 감금되다. 루르드(Lourdes)를 거쳐 몽토방(Montauban)으로 도피하다.

1941년(35세) : 하인리히 블뤼허와 함께 기차로 에스파냐를 거쳐 포르투갈로 출국하다.

1941년 1~5월 : 무국적 난민으로 리스본에 체류하다.

한나의 세 번째 탈출

1941년 5월 22일 : 하인리히 블뤼허와 함께 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하다. 어머니인 마르타 베어발트는 한 달 뒤에 도착, 그녀가 죽을 때(1948. 7. 27.)까지 블뤼허와 함께 뉴욕에서 거주하다.

1941년~사망 : 뉴욕에 거주하다.

1941~1952년(35~46세) : 언론 정치 활동 및 교육 활동을 하다. 유럽 유대문화재건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뉴욕의 다양한 기관에서 강연하다.

1944~1946년(38~40세) : 유대인 관계에 관한 학술대회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하다.

1946~1948년(40~42세) : 뉴욕 쇼켄(Schocken) 출판사 책임편집자로 활동하다.

1949~1952년(43~46세) : 유대인 문화재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내다.

1949~1950년(43~44세) : 유대인 문화재건기구의 임무로 첫 번째 유럽 방문이 이루어지다. 서독을 방문해 베를린에 머물면서 카를 야스퍼스, 마르틴 하이데거, 청소년기와 대학 시절의 친지를 만나다.

1950년 6월(44세) : 《사유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다. 28권이 1973년부터 유고로 출간되다 (~2002).

1951년(45세) : 《전체주의의 기원》을 출간하다.

“인간을 남아도는 존재로 만드는 인간의 잉여화, 그것은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단화는 존재를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인간의 존엄만 해치지만, 인간의 잉여화는 인간을 남아돌아 쓸모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운동은 원자화되고 고립된 개인들의 대중 조직이다. 다른 모든 당과 운동을 비교할 때 전체주의 운동의 가장 뚜렷한 외적 특징은, 개인 성원에게 총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무조건적이고 변치 않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952~1953년(46~47세) : 구겐하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유로운 연구 작업을 하다. 프로젝트 제목은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주의적 요소”였다.

1952년(46세) : 하인리히 블뤼허가 뉴욕의 바드 대학(Bard College)에서 철학과 교수직을 얻다.

1953년 10~11월(47세) :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서양 정치사상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여섯 차례 강연하다.

1954년 3월(48세) : 노트데임 대학교에서 “철학과 정치 : 프랑스혁명 이후 행위와 사상의 문제”라는 주제로 3부 강의를 하다.

1955년 봄(49세) :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초빙교수로 “역사와 정치이론” 강의와 두 개의 세미나를 하다.

1955년 가을 : 이탈리아, 그리스, 이스라엘, 스위스, 독일로 강연 및 휴가 여행을 떠나다.

1956년 4월(50세) : 시카고 대학교에서 월그린(Walgreen) 강연의 일환으로 여섯 차례 강의하다. 주제는 “인간 신체의 노동과 손의 작업”이었다. 《인간의 조건》을 집필하여 영어판(1958년)과 독일어판(1960년)으로 출간하다.

활동적 삶(vita activa)이라는 개념으로 나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활동, 즉 노동 · 작업 · 행위를 표현하고자 한다.

	사적 영역	공적 영역
공간	가정(oikos)	폴리스(polis)
활동 유형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원칙	필연성	자유
지배 형식	전제정치	민주정치

“사회가 모든 발전단계에서 – 예전에는 가정과 가계가 그랬던 것처럼 – 행위(action)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 대신 사회는 각 구성원에게 일정한 행동(behavior)을 기대하며, 다양하고 수많은 규칙을 부과한다. 이 모두는 구성원을 ‘표준화’ 시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며, 자발적 행위와 탁월한 업적을 갖지 못하게 한다.”

“타자에 의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 삶의 의미이다.”

“탄생에 함축된 새로운 시작은 새대기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능력, 즉 행위능력을 가질 때에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발성의 의미에서 행위의 요소, 즉 탄생성의 요소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들어 있다. 더욱이 행위는 정치적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멸성(mortality)이 아닌 탄생성(natality)은 정치적 사상의 핵심 범주가 된다.”

1958년 4~6월(52세) : 유럽을 여행하며 강연 활동을 펴다. 브레멘에서는 “교육에서의 위기”, 취리히에서는 “자유와 정치”, 뮌헨에서는 “문화와 정치”가 강연 주제였다.

1958년 9월 : 프랑크푸르트에서 평화상을 수상한 카를 야스퍼스에 대한 축사를 발표하다.

1959년 봄(53세) : 프린스턴 대학교 초빙교사가 되어 “미국과 혁명 정신”에 관해 강의하다. 이 강의 내용은 이후 《혁명론》(1963)으로 출간되었다.

“일부의 다수이든 사회 전체의 다수이든 관계없이 다수는 하나의 의견을 형성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공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 곳에 서만 의견들이 발생할 것이다.”

1959년 9월 : 함부르크시에서 수여하는 레싱(Lessing)상을 받다.

1959년 12월 : 뉴욕 맨해튼으로 이사하다.

1960~1961년(54~55세) : 컬럼비아 대학교(1960년 가을), 노스웨스턴 대학교(1961년 봄), 웨슬리언 대학교(1961년 가을) 등 여러 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하다.

1961년 4~6월 :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이히만 재판에 《더 뉴요커》의 리토펠로 참관하다.

1961년 : 《과거와 미래 사이》를 출간하다.

1962년 3월(56세) : 뉴욕에서 택시 사고로 입원하다.

1962년 가을 : 시카고 대학교에서 초청 강의를 하다. 그 이후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열다.

1963년 2월(57세) : 《더 뉴요커》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보고서> 5부작을 연재하다. 3월 말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를 출간하다.

아르헨티나나 예루살렘에서 회고록을 쓸 때나 검찰에게 또는 법정에서 말할 때 그의 말은 언제나 동일했고,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의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말하는 데 무능력함(inability to speak)은 그의 생각하는데 무능력함(inability to think), 즉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데 무능력함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와는 어떠한 소통도 가능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말(the words)과 다른 사람들의 현존(the presence of others)을 막는, 따라서 현실 자체(reality as such)를 막는 튼튼한 벽으로 에워싸여 있었기 때문이다. – 본문 106쪽에서

“악은 결코 ‘근본적이지’ 않고, 오직 극단적일 뿐이며 또 악은 그 어떤 깊이도 없고 어떤 악마적 차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말 나의 견해입니다. 악은 표면 위의 곰팡이처럼 퍼지기 때문에 무성하게 자라서 전체 세계를 초토화합니다. 악은, 내가 말한 것처럼, ‘사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어느 정도의 깊이에 도달하려 하고, 뿌리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악을 다루는 순간, 사고는 좌절합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 251 쪽

1963년 2~6월 : 유럽에 머물면서 하인리히 블뤼허와 로테 베라트(Lotte Beradt)와 함께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휴가 여행을 떠나다.

1963~1967년(57~61세) : 시카고 대학교 교수(교육과 참석 의무 감면)가 되다. ‘뉴욕 신사회연구소(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강의하다.

1964년(58세) : 국립문예원에 가입하다.

1965년 가을(59세) : 코넬 대학교 초빙교수가 되다.

1967~1975년(61~69세) : 뉴욕 신사회연구소 대학원 교수(교육과 참석 의무 감면)로서 “철학과 정치” 및 “칸트의 정치철학” 등을 강의하다.(이 강의는 1982년 유고로 출간됨.)

1968년(62세) :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을 출간하다.

살아 있으면서도 삶에 맞설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드리워진 절망을 다소나마 피하기 위해 한쪽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가 폐허 속에서 본 것을 다른 손으로 적을 수 있다. 그는 타인과는 다른 것,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결국 그는 살아 있을 때는 죽은 것과 같지만 참된 생존자다. - 프란츠 카프카, 『일기』(1921년 10월 19일자)

이미 가라앉고 있는 돛대의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 난파선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구조신호를 보낼 기회를 갖는다. - 발터 베냐민이 솔람에게 보낸 편지(1931년 4월 17일자)

1969년 2월(63세) : 카를 야스퍼스가 사망하다.

1969년 여름 : 하인리히 블뤼허와 함께 유럽에 머물다. 스위스의 테그나-로카로노에서 여러 주 동안 휴가를 보내다. 이후 거의 매해 몇 주 동안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다. 《폭력론(On Violence)》을 출간하다.

“권력과 폭력이 동일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권력과 폭력은 반대의 것이다. 하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 다른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은 권력이 위협에 빠질 때 등장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는 권력의 소멸을 불러온다.”

“권력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협력 행위(to act in concert)를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상응한다. 권력은 결코 한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에 속하며 그 집단이 협조할 때만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대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의미이다. 권력을 처음에 시작한 그 집단이 사라지는 순간 ‘그의 권력’ 또한 소멸한다.”

1970년 10월(64세) : 하인리히 블뤼허가 사망하다.

1971년(65세) : 《정신의 삶》을 집필하기 시작하다.

“정신의 삶은 전문적인 철학자들을 포함해 정상적인 모든 사람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활동적 삶과 정신의 삶 속에서 동시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의 일부인 셈이다.”(20쪽)

“대화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훌륭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즉 상대자를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을 의미한다.(674쪽) 우리는 또한 이 과정에서 “질문하는 사람이며 답변하는 사람”이다.(674쪽)

1971년 11월 :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보상 청구권을 결정하다.

1972년 11월(66세) : 캐나다 요크 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나 아렌트의 작품》 학술대회에 참석하다.

1973년 4~5월(67세) :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교에서 《정신의 삶》의 제1권 “사유(Thinking)”를 주제로 기퍼드 강연을 하다 (이 내용은 1978년 출간됨).

1974년 5월(68세) : 《정신의 삶》의 제2권 “의지”를 주제로 기퍼드 강연을 연속했으나 심장마비로

5월 10일 중단하다.

1975년 4월(69세) : 유럽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덴마크 정부가 수여하다는 소닝(Sonning)상을 받다.

1975년 5~6월 : 유럽에 체류하다. 마르바흐(독일 문화서고), 테그나(《정신의 삶》의 제2권 “의지” 집필 작업), 프라이부르크로 하이데거를 방문하다.

아렌트는 의지 능력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한다. 하나는 대상들이나 목표들 가운데 선택하는 능력, 즉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자유롭게 심의하는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 속에서 일련의 체계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능력’ 또는 ‘인간 자신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갖게 된 인간의 시작 능력이다.(500쪽)

아렌트는 의지가 순수한 정신 활동뿐만 아니라 감각지각에서 나타내는 힘(결합력)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정신, 특히 ‘의지의 집중’에서 비롯된다. “의지는 집중 덕분에 첫째로 우리 감각기관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현실세계와 결합시키고, 이어서 이 외부세계를 사실상 우리 자신으로 끌어 들인다.”(678쪽)

“의지는 사유와 마찬가지로 현상세계 속에서 진행되지만 현상세계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수행되는 정신 활동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의지는 현상세계와 사유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유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의지는 일반성을 지향하는 사유와 달리 특수성을 지향하므로 현상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세계와 의지 사이의 공간적 거리는 사유의 경우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677~678쪽)

1975년 12월 4일 : 뉴욕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다. 남편이 오랫동안 강의한 뉴욕주 허드슨 강 유역 애넌데일(Annandale-on-Hudson, New York)에 있는 바드 대학에 묻혔다.

‘벽돌책깨기’와 함께한 작은도서관 중독자들의 소감

- * 도서관 활동가 들이 함께 모여 일 이야기가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 가지 주제를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 벽돌을 완전히 깨지는 못했지만 벽돌을 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 * 회원도서관들이 모두 참여해 기획, 섭외, 진행을 나누어 맡아서 하니까 함께한다는 소속감이 들어서 좋았고 사업진행도 부담감 없이 여유로웠다.
- * 평소 잊고 살지만 살면서 기본이 되어야하는 주제들을 이끌어내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 고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깨는 계기가 되었고 고전을 읽는 시각을 넓혀주었다.
- * 이 교육을 계기로 도서관에서 책읽기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
- * 한 주제로 연장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 벽돌을 깬으니 이제부터는 도서관들이 함께 논의해 쌓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 * 워크숍 후 평화를품은집 뒷산을 힘겹게 오르며 힘든 만큼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벽돌책 깨기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 * 사업비에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인건비지급도 협회에서 해주어 사업 진행이 수월했다.나눔터가 되어왔습니다





구리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2018년에도 '애기똥풀도서관'을 중심으로 '산마루작은도서관', '꿈꾸는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통로', 이렇게 네 도서관이 모여서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해서 구리시에 있는 다른 작은도서관과 연대하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를 탄생시켰다. 2018년 11월 말에 탄생한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는 신생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하던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며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게다가 점점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 책을 매개로 여기저기서 모여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의 책과 함께 하는 사랑방 역할은 어느 단체도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도 구리에서의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은 작년에 발족한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회원 도서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구리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이 도서관과 책에 대한 인식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장서와 운영철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각 도서관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구리시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철학이나 장서 배치 등 실질적인 도움도 얻었지만, 더욱 놀랄만한 것은 구리시 작은도서관원 지원조례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역시 함께 모이고, 배우고 토론하면, 문제의식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일이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해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의 현 상황이 보이고, 문제점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구리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유익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상 구리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시간 모든 강의는 10시에 시작

날짜	강의 제목	강사	장소
6월26일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독서토론 수업모형	김순옥 (즐거움 책임기, 바른 글쓰기 대표)	꿈꾸는 작은도서관
7월24일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박소희(어린이와 도서관협의회 이사장)	늘푸른 작은도서관
8월21일	마을속 작은도서관 임. 그 의미	강무홍(동화작가)	더삼재움 작은도서관
9월18일 (10:00~15:00)	도서관의 장서, 그림책 이야기 작은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최은희(어린이도서관 연구회사무총장) 워크숍 진행: 한은희 (구리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	새성동 작은도서관

주최 1기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주관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문의 010-3559-0248



첫 강의는 독서지도에 대한 강의였는데, 도서관 실무자들과 봉사자들이 독서하는 좋은 방법이라든지 책에 대해 모르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첫 강의로 선택했던 것인데, 실무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독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의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의회 박소희 이사장님이 쓴 책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라는 책을 각 도서관 실무자들이 읽고 와서 강의를 들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의 실태뿐만 아니라 구리시작은도서관의 현황을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주셨다. 정작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구리시작은도서관의 현 상황이 현장과 다르게 통계 자

료나 실질적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사립공공작은도서관들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관계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통계자료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 강연을 기회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강의는 동화작가이자 독서문화 운동가이신 강무홍 작가를 모시고, 책의 역사와 그림책,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이태준 작가의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을 읽어 주셨는데, 그 책이 그렇게 심오하게 다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월북 작가이기에 이태준의 동화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너

무 늦게 읽혔던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월북 작가의 판금 조치 없이 그의 동화를 마음껏 읽었다면, 우리나라의 동화가 30년은 앞서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요즘 많은 작가들이 아주 아름다운 책들을 그리고, 쓰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강무홍 선생님 하고는 점심 식사하고, 같이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이야기, 책 이야기 등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강무홍 선생님이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는 도서관의 장서와 동화 이야기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최은희 사무총장님이 해주셨다. 오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못 했지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좋았다고 했다. 작은도서관이 품위가 있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되려면 서가를 잘 배치하고 책을 아름답게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점심 시간 이후 워크숍으로 모였는데, 이때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가 시장님 면담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원조례 개편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가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조례에 많이 못 미치고, 현 작은도서관들의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대폭 개정하기로 했고, 시립도서관과 만나서 논의하고, 시의원과도 논의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구리시작은도서관조례를 전면 개편하기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찌면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모여서 배우고 토론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 속에서 산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 개편을 우리 구리협의회가 힘을 모아 해 낼 것이다. 월례회 외에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 모임을 할 것을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마지막 날 워크숍을 통해 결의한 바 있다. 우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은 지속적인 만남과 연대 속에서 서로 격려해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퍼실리테이션 하자!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외 3곳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인천 지부는 3개의 작은도서관과 15개의 작은도서관으로 구성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등 4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의 회원도서관으로 협회의 다양한 책 문화와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에 함께 하며 인천에서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만수3동에 있는 뽀얏감리교회에서 설립한 꿈나무도서관은 '우리 마을 쉼터, 꿈터!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으로 2009년 개관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림책 읽는 맘', '사화칠서' 등 여러 독서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을의 책 읽는 문화를 이끌고, 북스타트, 책이랑 놀자 등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난타, 한국사교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이 찾아오는 마을도서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김광원 관장을 포함한 25명의 운영위원과 어린이, 청소년 운영위원까지 꿈나무도서관을 지역주민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정 우수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었던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분기별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지역과 함께 나누는 일도 열심을 다하는 도서관입니다.

1998년 개관하여 인천 연수구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마을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을 펼쳐 온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올해 21살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늘푸른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도서관으로서, 주민들의 마을사랑방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년은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이 인천의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긴 시간입니다. 2004년 인천의 작은도서관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인천의 작은도서관운동을 이끌었고 북스타트 운동을 민간의 힘으로 시작하여 인천에 북스타트를 정착시킨 도서관입니다. 2018년에는 인천시 지정 우수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1기까지 운영중인 얘기보따리 등 8개의 독서동아리와 '책아, 나랑 친구하자' 등 많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은도서관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용자가 감소하는 등 작은도서관의 고민을 '늘푸른어린이간평가단'을 운영하며 풀이 가는 중이고, 도서관 어린이 이용자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늘푸른의 선배들이 청소년 이용자를 만나는 '작은도서관, 꿈! 꾸다'는 21년의 역사를 간직한 곳인 늘푸른어린이도서관만의 자랑입니다.

강화에 자리잡은 자람도서관은 2012년 개관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고제현 선생님이 방과 후 갈만한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작은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직접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책과 함께 꿈, 생각, 마음이 자라는 자람도서관은 마을 어르신, 아주머니, 아저씨, 청소년, 어린이들의 소박한 사랑방이 되고 싶은 마을도서관입니다. 2017년부터는 소중한 마을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자람지킴이를 자처한 3명의 공동운영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강화의 대표적인 교육공동체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일원입니다. 그 외에도 자람지킴이들이 함께 자람도서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심지어 놀이터 하나 없는 지역에 자람은 문화사업, 교육프로그램, 공동육아, 학부모 모임 공간, 돌잔치 장소 대여, 지역아동센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그림책 만들기, 열린 세계 시민교육, 자람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주간 아이들과 흠집을 만들어 완공식을 진행하였고 중고생들과 1박2일 구덩이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람도서관은 지역에서 일상을 살며 만들어낸 문화콘텐츠이며 생활공동체, 교육공동체,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2004년 "어린이도서관운동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운동을 펼치며, 회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한 인천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립 운동, 지역의 독서문화운동 등 작은도서관운동을 하며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펼쳐 나갑니다.

어린이도서관 발전방향과 모색을 위한 공청회, 어린이날 행사, 부평구 책놀이 마당 등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확대, 2006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어린이도서관 실무자교육, 어린이 사서캠프, 찾아가는 북스타트, 유아6주 프로그램 "책이랑 놀아요" 등을 운영하며 2011년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인천 각 구의 15개 작은도서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교회 등 다양한 관종과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구성으로 조직된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비록 그 가입 도서관의 수가 많지 않지만 그동안 작은도서관 학교, 지역 책 축제, 정책제안 등 다방면에서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2018년 작은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해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인천, 독서생태

계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성과로 인천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독서문화의 흐름에 대해 공부하고, 이것을 ‘인천’에 맞게 적용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것을 위해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자와 활동가, 그리고 인천서점조합, 인천작가회의, 출판, 학교도서관 사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지부 등 네트워크들과 함께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 배경

2018년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인천의 독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안하였던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의 독서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주체(서점, 출판, 작가, 어린이도서연구회, 학교도서관 등)들과 인천독서문화포럼이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월 1회 만남을 지속하며 인천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제정 이후 실질적인 독서문화정책이 구현되는 경우, 어떤 제안을 해야 할지, 인천에는 어떠한 독서문화정책이 필요할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획은 무엇일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를 지원하여 ‘독서문화기획’에 대해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독서문화기획이 작은도서관 운동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지난해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급급하여 돌아볼 틈이 없었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게 지나온 활동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면 2019년에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독서문화기획자로 역량을 강화하여 인천 독서문화 진흥의 촉진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구성원들의 소통을 촉진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합의의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 퍼실리테이터는 소통의 촉진과 갈등의 해소가 필요한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며 마을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제로 주민을 만나는 작은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은 활동가 개인이 깊이 고민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퍼실리테이션 교육은 작은도서관 활동가를 조직의 문제와 비전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촉진자로 성장시키고 도서관 운영을 위한 회의 현장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역량을 제공하므로 회의 문화가 개선되며, 개인의 역량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퍼실리테이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인천의 독서문화정책을 숙의,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천의 독서문화환경이 변화하고 독서문화정책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2019 '스스로' 아카데미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의회지원사업

퍼실리테이션 하자!

어쩌다 교육, 다름을 더해주는 일

일정 2019년 9월 17일-10월 15일(화)
장소 인천여성회 교육실

- 1회. 9.17.(화) 18:00-21:00 퍼실리테이션이란?
- 2회. 9.24.(화) 18:00-21:00 퍼실리테이션의 2code
- 3회. 10.1.(화) 18:00-21:00 퍼실리테이션 도구 채득
- 4회. 10.8.(화) 18:00-21:00 퍼실리테이션 집중 탐구
- 5회. 10.15.(화) 19:00-21:30 퍼실리테이션 실행계획 수립

주최.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부,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주소.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71(동양빌딩 4층)
문의 및 신청.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010-7558-6250



퍼실리테이션 교육은 한국액션러닝협회에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터 초급과정을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초빙하여 총5회 15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 글로벌 액션러닝그룹 교육센터장 김부길 강사가 4회, 이룸심리상담센터 대표 방미화 강사가 1회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총 35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원 수료하였습니다.

첫 교육인 1회차는 퍼실리테이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팀 명칭과 Groud Rule을 만드는 팀 빌딩, 명목집단법과 Post-it 사용법을 통한 토론진행방법, 의사수렴방법인 Multi-Voting을 시작으로 퍼실리테이션의 정의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란 효과적 의사결정을 위해 문제인식방법과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방법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해 진단하고 개입하는 과정이며 퍼실리테이터는 이 과정을 돕는 프로세스 전문가입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람을 배려하고 기꺼이 도우며 팀의 목표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2회차 교육은 퍼실리테이션 2Codes로 ‘함께’ 더하기 ‘학습’입니다.

자기결정성과 커뮤니케이션 게임, 퍼실리테이터의 기본 스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관찰, 질문, 경청, 칭찬은 퍼실리테이터의 기본 스킬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가정과 추론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고 중요한 단어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이해



하도록 명확히 정의하여야 하며, 자신의 사고논리와 의도를 함께 설명하여야 합니다.

3회차 교육은 퍼실리테이션 도구를 체득하는 시간으로 집단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Multi-Voting 과 Decision Grid(의사결정 그리드), 효과적인 미팅을 위한 IAGREE 회의 방법을 배우고 실습하였습니다.

IAGREE 회의방법은 I(Ice Break), A(Agenda:회의진행계획), G(Ground Rule), RE(Reflection: 성찰), E(End)로 미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Agenda(회의진행계획)을 직접 세워보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시간구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4회차 교육은 퍼실리테이션 집중탐구 시간입니다. 자유토론 퍼실리테이션 기술과 문제해결 워크숍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하였습니다. 자유토론은 그룹의 사고를 도와주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다. 그러나 강력한 퍼실리테이션이 없다면 자유토론은 매우 지루하고 절망스럽고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룹의 잠재력을 생산성 있게 거두어들이려면 퍼실리테이터의 참여 기술이라는 내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잡아두기, 순서대로 발언하기, 장려하기, 균형 잡기, 시계 사용하기, 공간 주기, 침묵을 인내하기 등으로 토론의 흐름을 조절하고 참여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문제해결 워크숍에 필요한 아이디어 도출방법인 Idea Relay, 디딤돌, ERRC View(제거, 감소, 확대, 창의적 시도)를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션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5회차 교육은 퍼실리테이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입니다.

퍼실리테이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 포인트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 ① Post-it 을 가까이 한다. (Post-it : 효과적인 강력한 Tool)
- ② 퍼실리테이션의 메인 필드는 미팅과 워크숍이다. (IAGREE Model)
- ③ 장애를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원이 있어야 한다. (신념과 철학)
- ④ 혼자서는 외롭고 오래가지 못한다. 함께 할 동료들 만든다. (3의 법칙)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퍼실리테이션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점목하고 싶은 나의 퍼실리테이션 실행 필드는?
- 무엇을 준비하면 효과적일까?
-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 진행 과정 중 극복할 장애요소는 무엇일까? 어떻게 극복할까?
- 함께할 협력 동반자는 3명은 누구로 하면 좋을까?(3의 법칙)

위와 같은 실행 계획 전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미팅(워크숍)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미팅과 워크숍 진행에서 또한 강조할 점은 미팅을 마치기 전 반드시 배운 것, 느낀 점, 실천사항을 나누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매시간 교육의 마무리는 성찰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함께 한 배움지기들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퍼실리테이션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활용합니다. 작은도서관 교육에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독서문화진흥조례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 및 독서문화정책 제안을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작은도서관 운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회의나 교육 참석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각 도서관에서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독서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퍼실리테이터 리더십은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퍼실리테이션 하자!”와 함께한 소감

- 생소하고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퍼실리테이션을 정의하긴 아직도 어렵다.
- 참여도가 높아서 보기 좋았다. 교육안내메세지가 지난 수업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 사소한 것 같지만 위대한 집단지성! 퍼실리테이션!! 멋진 나비효과!!!
- 퍼실리테이션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겠다.
- 스스로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배우고 일에 체계를 세우도록 생각하게 되었다. 강의 하나, 모임 하나를 하더라도 목표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잘 활용하여 잊지 않도록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적절한 시기 필요한 교육이었다.
- 모두가 참여하는 법, 진행자의 진행법, 시간 분배하기 등 알고는 있었지만 옮기기까지의 어려움을 풀어준 것 같다.
- 여러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갈 때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어 좋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과정들 또한 여러 방법을 배웠습니다. 긴 호흡으로 체득되듯 배워갔으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준비하시고 섬겨주신 협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퍼실리테이션 과정을 배우게 되어 좋았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민주적으로 도출하는데 유익한 절차들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았다. 아이스브레이크 활동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유익했다.
- 소통하는 방법, 의견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 퍼실리테이션 개념을 5회에 맞보기하는 수업이 된 듯하다. 회의준비 정도와 퍼실리테이션이 함께 만날 때 놀라운 회의진행이 될 수 있음을 알아가는 수업이었다. 현실 적용이 가능 할 정도의 깊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5회가 짧다고 생각합니다.
- 권위나 권력에 눌리지 않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방법과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을 넓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부랴부랴 오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상태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용이 알차고 열심히 들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큰 기대만큼 큰 만족을 느낍니다. 수준 높은 역할을 요구하기에 이제 겨우 수박 겉을 훑아보았다고 할까요? 일로 생각한다면 매우 멋진 일일 것 같습니다.
- 퍼실리테이션에 대해 들어보기만 했었는데 직접 이론적인 부분을 실습으로 체득해 보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교육 당일 문자로 해당 회차에 대해 미리 안내해 주셔서 잊거나 늦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퍼실리테이션에 대하여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바쁘게 참석하여 피곤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모든 의견을 수용하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처음엔 일정과 시간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웠는데 하다 보니 몰입하게 되었네요. 열정적인 강사님들의 열강과 도서관에 몰입되어 보지 못했던 것을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들으며 진단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의견수렴과정이 의외로 재미있고 즐거운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네요.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퍼실리테이션을 처음 접해보는 시간이었는데 회의 및 진행방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어 유익했지만 다소 어렵고 지루하기도 했다.
-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배운 부분을 도서관 운영에 적용하며 발전적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열띤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회의 진행시에도 정해진 시간에 얻고자 하는 목적과 주제가 빨리 정리될 듯합니다.
-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일상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이 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후에 모임, 회의 등을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퍼실리테이션에 대해 전무한 상태였는데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모임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스킬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 회의할 때 꼭 필요한 유익한 교육이었다. 실무에 적합하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고 실생활에 가족회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은 강의였다.
- 매시간 퍼실리테이션 내용도 알차고 강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토론진행의 기술도 잘 가르쳐 주시고 모두 좋은 내용,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되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 퍼실의 다양한 기법을 배웠다. 그 기법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활용한다면 회의, 위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문화기획을 공부하다

대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7곳

- 크습이 풍부해질 것 같다.
- 퍼실리테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이 너무 멋진 일인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 너무 좋았습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 막연하게 알고 있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목적부터 기술까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모임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의 목표만 가지고 왜 안 될까? 답답했었는데 하루하루 새롭게 배우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처음 접한 퍼실리테이션인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내용도 업무에 활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녁시간이라 조금 V,곤하고 가끔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때도 있었는데 막상 오면 항상 유쾌하게 함께 하시는 분들과 재밌게 놀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좌 열어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소통을 알게 되고 의견수렴의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 삶에 적용하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에는 그나라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마을도서관 도토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 아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책마실도서관, 해봄도서관이 함께하고 있다.

대구지부는 격월 회의를 통해 도서관 활동 공유, 방학 때 각 도서관 자원활동가의 강사 교차 파견, 지자체 도서관정책 공유 및 토론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대구시 독서의 숲을 제대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대구시 독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후보자에게 정책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답변서를 요구하는등 독서공동체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올해 초 대구지부 사업을 논의하면서 책이 중심이 되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앞으로 작은도서관 철학이 담긴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공부를 이어가자고 논의했다.

기획배경

대구지부 소속 도서관 활동가들이 강좌를 개최하고 싶었던 이유와 필요성은 지금 작은도서관 양적 증가만큼 질적인 성장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자 도서관 운영에 급급해서 차분히 교육역량을 축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과 대구작은도서관 네트워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마을도서관네트워크, 대구작은도서관협회) 여럿 구성되어 있으나 꾸준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지자체, 대표도서관이 주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활동가 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교육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스스로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개별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뛰어 넘어 넓은 시선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원활동가 성장에 집중하고, 아카데미 이후에도 연구와 토론으로 배움을 이어나가며 작은도서관 철학이 담긴 책문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과 깊이 만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장소: 대구여성회 3층 교육실(시정 옆)
문의: 010-9299-3033

9/19 목요일 14:00	문화 다양성과 작은도서관 강사: 박미숙 해과 도서관 대표	9/26 목요일 14:00	독서문화 기획과 실제 1 강사: 박형섭 독서문화 기획자
10/10 목요일 14:00	독서문화 기획과 실제 2 강사: 박형섭 독서문화 기획자	10/17 목요일 14:00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도출 강사: 지명희 대구여성광장 대표, 퍼실리테이터

주최: I세대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 탐방, 강연, 워크숍, 평가 등의 내용으로 총 6회 진행되었다.

강좌를 열기 전 첫 행사로 대한민국 독서대전, 초롱이네도서관을 탐방하였다. 올해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지역의 여럿 도서관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해 독서문화, 독서동아리 운영, 도서관 독서문화기획 사례를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 초롱이네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아늑한 분위기에 매료되고, 북스테이, 도서관 굿즈 제작판매 등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었다.

이어진 강좌는 문화다양성과 작은도서관, 독서문화기획과 실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박미숙 선생님의 '문화다양성과 작은도서관' 강의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작은도서관이 커뮤니티, 공동체, 독서문화, 평생교육, 평등한 공간으로서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서, 언어, 활동, 관계 등 생각할 거리와 과제를 얻은 강의였다.

박형섭 선생님의 '독서문화기획의 실제'는 독서문화기획, 책축제 내용으로 두 번에 걸쳐 강의했다. 독서문화기획을 위해서는 먼저 마을의 특징 찾기, 도서관이 실험교육의 장소, 평생교육의 장소로 추억을 남기는 기획을 권해주셨다. 프로그램은 재미있게, 내가 주인공이 되도록, 연속성을 가진 기획을 강조하며 여러 사례를 들려줬다.

마지막 강좌는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지명희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작은도서관 활동을 되돌아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워크숍이었다.

먼저 '요즘 나는?' 이라는 내용으로 도서관 활동의 만족도, 내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공간온도계를 체크해보고,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의 모습, 도서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창조하고, 어떤 활동을 증가하고 감소, 제거할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에서 활동가의 고민과 마음을 나누고, 도서관 활동에서 덜 지치고 재미있게 활동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앞으로는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을 길게 해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우리는

스스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매주 얼굴을 맞대며 고민과 배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일상에서는 각자 도서관 운영에 허덕이다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대구지부가 있기에 작은도서관 운동을 이어가고 어려움을 나누며 든든한 울타리임을 새삼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고 독서문화기획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후속모임을 하기로 했다. 매월 문화다양성, 독서문화기획 관련 책을 읽고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와 함께한 소감

스스로 아카데미를 해보니, 기획과정이 조금 더 면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은 역시 듣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 아띠 관장님이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나서는 나누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막연함을 구체화 시켜주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이 생겼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을 찾았다는 게 저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같이 모여서 책도 읽고 찾아보면서 치열하게 공부해 봅시다요!! - 김경희

작은도서관 문화에 대한 흐름이나 과정, 내용들을 구체화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공통의 과제로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끝이 아니길.ㅋ - 김수민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목표를 가졌지만 같은 수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고민도 있고 다른 고민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마련의 장이었던 거 같아요. 이번 아카데미가 초석이 되어 서로 응집하여 협력되어졌으면 합니다. - 손수정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기획,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최경임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 소개 : 울산작은도서관협회(울산의 28개 작은도서관이 모인 네트워크)
- 기획배경
 - 울산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울산작은도서관협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논의
 - 울산작은도서관협회원 교육

- ① 울산도서관협회 창립으로 앞으로의 방향 모색: 2019년 3월11일(월) 울산도서관
- ② 환경이 다른 작은도서관들끼리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 북구(33개관)
 - ↳ 네트워크도서관(13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개소당 연간 1,100만원 지원 (인건비 660만원(매월55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운영비 120만원, 프로그램비 120만원지원)
 - ↳ 그 외 도서관(20개관): 구청에 등록된 뒤 1년이 경과한 도서관 4개소에 연간 200만원의 도서구입비를 지원
 - 울주군(47개관): 공립작은도서관 13개관, 사립작은도서관 34개관
군에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도서관은 1개소당 일괄 2,200,000원 지원
 - 동구(21개관): 공립작은도서관 4개관, 사립작은도서관 17개관
 - 사립작은도서관 1개소당 7~80만원 (2019년 1,350만원. 전년도대비 50%삭감)
 - 동구청에 작은도서관 등록만 하면 운영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지원
 - 남구(33개관): 공립작은도서관 11개관, 사립작은도서관 22개관
주민센터 안 마을문고를 공립작은도서관이라 부름

사립작은도서관 / 도서구입비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도서관 1개소당 200지원

- 중구(37개관):공립작은도서관 14개관, 사립작은도서관 23개관
중부도서관 2022년 준공예정
작은도서관예산 1,658만원 사립개소당 110만~130만 차등지원
순회사서 -함월도서관, 옥골샘, 복산2동 외 1개관 주 회 순회 (3월~11월)

- 서로 다른 지원환경 속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협회에 바라는 사항이 다를 수 있어 조율이 필요
- 구별 협의회가 있는 곳은 서로 교류하고 정보 교환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나 협의회가 없는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모자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① 사전모임

- 스스로 아카데미 확정 후
- 7월 24일 (수) 울산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기획팀 꾸리기
- 8월 13일 (화) 대명루첸아파트 작은도서관(남구)/ 구체적인 내용점검
- 8월 21일 (수) 울산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최종점검
- 8월 13일 교육일정 확정

- * 제목 :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
- * 목적 : 작은도서관 활성화 마련을 위해 울산작은도서관협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활동방향을 모색한다
- * 기간: 2019. 9.03. (화) ~ 9. 24. (화) 10:30/ 3회
- * 장소: 울산도서관 문화교실1,2
- * 세부일정
 - 1차시 : 9월 3일 울산작은도서관을 잇다 - 작은도서관 함께 할래?
 - 번 외 : 9월 10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작은도서관 필수 교육프로그램
 - 2차시 : 9월 17일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
- 작은도서관 공감대 형성
 - 3차시 : 9월 24일 협회야! 이것 좀 해 줄래?
-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협회의 방향 모색



② 1차시 :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만남

- * 날짜: 2019년 9월3일(화) 오전 10시 ~12시 15분
- * 장소: 울산도서관 문화교실 2
- * 참석인원 : 44명

* 진행순서

- 1부 : 인사, 내빈소개 및 축하 말씀
작은도서관 20년 함께 읽을래? 상영

2부 : 퍼실리테이션

- 영상보고 느낀점 나누기, 질문과 답변의 시간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0:00~11:00	사회자 : 전체진행설명	10시~10:05
	인사말 (3명)	10:05~10:12 (2분*3명 + 1분)
	<작은도서관 함께 읽을래?> 상영	10:12~10:57 (45분 상영)
	2부 설명	10:57~11:00
11:00~11:30	서로 인사	11:00~11:08 (1분*8명)
	느낀 점, 모두의 공통질문 이야기 나누기	11:08~11:26 (2분*8명+2분) 포스트잇 사용(여러 장 사용가능)
	나눈 내용 정리	11:26~11:30 (4분) ① 조이를 기록하기 ②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 느낌, 질문 있으면 "질문"이라고 카 톡방에 써주기
11:30~12:00	느낀점 발표	11:30~11:40 (2분*5조)
	질의응답	11:40~11:55 (15분)
	마무리, 사진찍기	11:55~12:00

* 영상 본 후 느낀 점 나누기

-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곳이다.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곳을 다시 생각했다.
- 다른 작은도서관들의 특색 있는 활동들을 보고 우리 도서관에도 도입하고 싶다.



- 작은도서관의 유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감동적이다
- 작은도서관은 삶을 나누는 공간, 공동체 공간이다 경쟁 아닌 나눔의 공간
- 아이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는 모습, 야외 작은도서관, 몸놀이, 책잔치가 인상적이었다.
- 왓지지껄 시끄러운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다.
- 도서관의 지속가능성, 작은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 우리도서관의 정체성. 봉사와 생계의 갈림길(밥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 주민참여가 답이다.
- 20년 동안 지속했다는 것. 그 수고로움이 보여 진다.

*** 궁금한 점**

- 운영비 마련과 도서관 운영의 지속적인 힘이 궁금하다.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과 존립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 구입도서 선정방법이 궁금해요 등

*** 1차시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

- 각 구별 참석자가 골고루 섞여서 다섯 조가 만들어졌고, 각자 소개 및 도서관 소개 간단히해서 좋았다.
- < 작은도서관 20년 함께 읽을래? > 영상을 통해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영상을 본 후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적고 조별 모둠형식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다른 지역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례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
- 모둠에 따라서는 모둠장이 퍼실리테이션 형식으로 진행해본 경험이 부족해서 시간 안배와 정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③ 2차시 :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

* 날짜 : 2019년 9월17일(화)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울산도서관 문화교실 1

* 참석인원 : 26명

*** 진행순서**

토론 1)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책 이야기 나누기

- '공동체'와 '대화' 빼고 3단어 이상씩 적고 이야기 나누기
- '한 문장으로 정리'

토론 2)

- 작은도서관을 하게된 계기
- 작은도서관 흑역사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0:00~10:07	전체 진행	사회자 : 전체진행설명	10시~10:07 (7분)
10:10~11:30	모둠 토론	서로 인사	10:10~10:15 (1분*8명)
		토론1 : 책이야기 나누기 - '공동체'와 '대화' 빼고 3단어이상씩 적고 얘거나누기 - 한 문장으로 정리	10:15~10:42 (3분*8명+3분) 포스트잇 사용(여러 장 사용가능) 10:42~10:45 (3분) - 정리 ① 조이름 기록하기 ②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
		- 작은도서관을 하게 된 계기나 기억에 남는 것	10:42 ~ 10: 58 (16분)
		- 작은도서관 흑역사	10:58~11:26 (3*8+2분)/ ~11:30(4분)정리 ① 조이름 기록하기 ②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
11:30~12:00	공유 시간	토론1	11:30~11:40 (2분*5조)
		토론2	11:40~11:50
		마무리, 사진찍기	11:50~12:00

* 조별발표내용

<책이야기 나누기>

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 단어 3개를 쓰고 이야기하기

- 행복, 경청, 관계, 모임
- 혁명, 스타디서클, 행복, 우리
- 행복, 경청, 관계, 열정
- 소통, 평등, 행복, 배려,

<키워드로 한 문장 만들기>

-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위하여 모임을 만들어 혁명을 시작하자!
- 행복해지고 싶다면 만나라!
- 행복은 단체의 수다와 경험에서 시작된다.
-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 타인과의 유쾌한 작당이 행복으로 가는 길
- 행복은 관계로부터 생겨나 공공의 변화를 이끈다
- 행복이란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다로 만들어진다.
- 경청을 잘하면 좋은 질문이 나오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도서관활동을 하게 된 계기

- 꼭 하고 싶어서.
- 도서관에서 하는 그림책모임을 하며 자주 오게 되고 운영위원해보라 해서 거절을 못해 시작
- 자원봉사 모집광고를 보고
- 지인의 권유로
- 자원봉사를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자주 접할수 있을것 같아서
- 독서토론의 토대가 형성될거 같아서 시작하게 됨.

* 나의 흑역사 :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일

- 도서관 이용자와의 관계, 감정소모가 많다.
-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 인건비 마련의 어려움, 활동비, 운영비 부족
- 업무분담이 힘들고, 프로그램 진행및 홍보, 사람모으기 어려움

- 인적자원, 활동가 부재, 봉사자 모집 어려움
- 가정일과 도서관일을 둘다 잘해내기가 어려움. 집안일에 신경 못 쓸 때 활동에 회의가 듦

* 2차시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



- 조별 구성을 1차시때와 다르게 해서 모르는 분들이 또 한조가 되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 질문과 나눌 얘기가 많았지만 1차시 때의 경험으로 퍼실리테이션 형태의 토론이 좀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 책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와 도서관활동에 관한 노하우를 더 알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다.
-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느낀 힘든 점 등을 활동가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 강의식보다 자유롭게 토론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이 훨씬 참여도가 높고 호응이 좋았다.

④ 3차시 : 협회야! 이것 좀 해줄래?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울산도서관 문화교실 1

*참가자 : 23명

*진행

- 여는 질문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본 질문 : 협회의 방향모색 (협회야 이것 좀 같이 해줄래?)
- 키워드 문장으로 정리해서 투표하고 결과 공유
- 스스로 아카데미 그동안의 준비와 활동 모음영상 (3분)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0:00~10:07	전체 진행	울산도서관 관장님 인사말 사회자 : 전체진행설명	10시~10:07 (7분)
10:07~11:30	모둠 토론	서로 인사	10:7~10:17 (1분*10명=30분)
		여는 질문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10:17~10:47 (3분*10명=30분)
		본 질문 : 협회에서 해야 할 일	10:47~11:20 (3*10+3분=33분) 11:20~11:30 (10분) 정리하는 시간 ① 조이를 기록하기 ② 포스터잇 사용- 분류해서 키워드 단어 적기 ③ 문장으로 정리하기
		사진전송	11:30 정리된 조는 카톡방에 올려주기
11:30~11:50	공유 시간	토론1, 2	11:30~11:40 (2분*4조+2분)
		영상(스스로 아카데미)	11:40~11:44 (4분)
		투표 결과발표	11:44~11:50(6분)
11:50~12:00	마무리	대표 인사	~11:55 (5분)
		마무리, 사진찍기	~12:00 (5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자원활동가관련

내적동기: 인정, 열정, 의미

자원활동가의 결속력, 친목- 업무분담

자원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주민참여관련- 재능기부, 동아리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관련- 주민들의 독서성향 파악해서 새 책 구비, 북큐레이션, 책읽어주기

독서문화 체험: 독서문화프로그램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체험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 어떻게 하면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 운영비 마련

* 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협회의 방향모색> - 협회야 이것 좀 같이 해줄래?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투표, 한글오피스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 두 개 항목에 체크하는 방식

<나온 이야기의 결과>

- 정기적인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구군별 관공서에 도서관과 마련 촉구, 협회임원 및 구군 □담당자 역할 강화 분담 0%,
- 우리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평화시위, 울산작은도서관 소식지 (홍보) 1%
- 신규도서관 지원과 관심 2%
- 운영자, 활동 맞춤 교육지원 13.6%
- 구군별 커뮤니티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독서 문화 프로그램 지원 18.2%
- 상호대차서비스 요구 (K-RAS) 구축 31.8%
- 도서관 재원 (운영비, 활동비, 시설비 등) 지원 45.5%
-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촉구 54.5%

⑤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 소속 구군 분포:

북구 31%, 동구26%, 울주군17%, 남구13%, 중구 13%

■ 스스로 아카데미가 도움이 되었는지?

도움이 된다: 9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 스스로 아카데미 만족도 체크

3회 프로그램 횟수 만족도 : 매우 만족 12명, 만족11명

■ 교육시간 (1회 120분) 만족도: 매우 만족 12명, 만족 10명, 보통 1명

■ 교육시간 (10~12시) 만족도 : 매우만족 12명, 만족 9명, 보통2명

■ 본인에게 도움이 는지? 매우 만족 12명, 만족8명, 보통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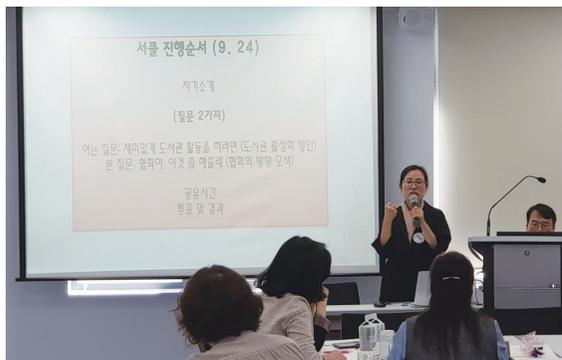
■ 아카데미 전반적 만족도: 매우 만족 12명, 만족 9명, 보통 2명

■ 기타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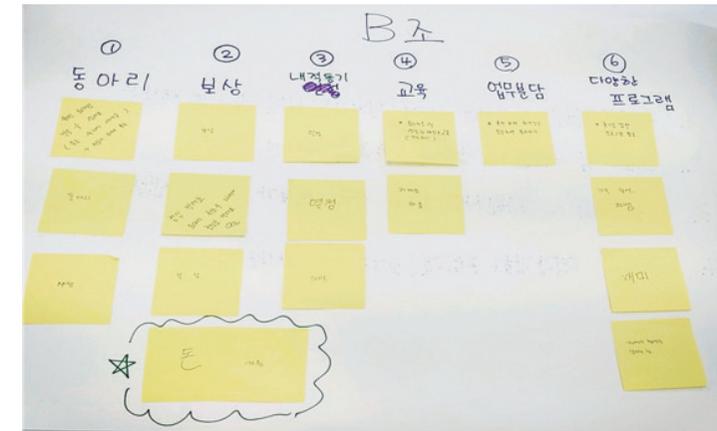
- 각 도서관만 가지고 있는 팩트를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서로간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작은도서관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웃음치료등 재미난 활동
- 우수 도서관 탐방(각도서관 게시판,소식지 활용 공유)
- 토론시간이 짧아 좀더 길게 공유
- 강의교육
-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필요
- 구군별 협의회 구축

■ 앞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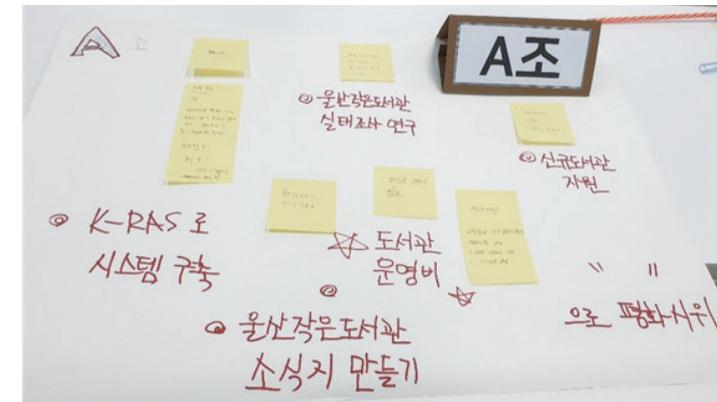
- 도서관 관리자 사례발표 기회
-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발표
- 독서지도에 관한 프로그램
- 작은도서관 탐방
- 그림책읽기 강의
-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라벨링, 청구기호 통일
-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 책보수 및 복규레이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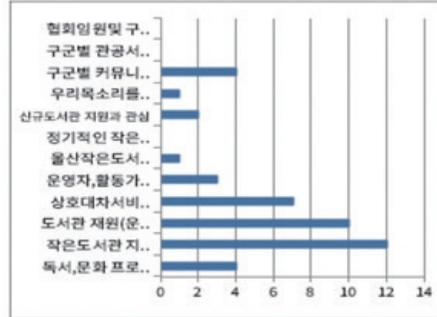
협회에 바라는 것



조별 키워드 투표결과

1. 작은도서관지원센터 설립
2. 도서관 자원(운영비, 활동비, 시설비)지원
3. 상호대차서비스

협회가 이것 같이 해볼래?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4	18.2%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촉구	12	54.5%
도서관 자원(운영비,활동비,시설비 등) 지원	10	45.5%
상호대차서비스 요구(K-RAS구축)	7	31.8%
운영자,활동가 맞춤 교육지원	3	13.6%
출산작은도서관 소식지(홍보)	1	4.5%
정기적인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0	0%
신규도서관 지원과 관심	2	9.1%
우리쪽소리를 높이기위한 평화시위	1	4.5%
구군별 커뮤니티 네트워크, 협의회 구축	4	18.2%
구군별 관공서에 도서관과 마련 촉구	0	0%
협회원및 구군 담당자 역할강화,분담	0	0%

2019 스스로 아카데미 참가도서관

[울주군]

교동리슈빌작은도서관
강변월드메르디앙작은도서관
문수산 동원작은도서관
문수산 더샵작은도서관
아너스빌작은도서관
지혜샘터작은도서관
해브리작은도서관
호반숲속작은도서관
황금동도서관

양정작은도서관
에플1차작은도서관
엠코 가온누리
작은도서관
책가방작은도서관
책놀이터작은도서관
책누리작은도서관
책마루작은도서관
책사랑작은도서관

[남구]

대명루첸작은도서관
마이코즈문고
울림북카페
책마루도서관

[중구]

꿈틀꿈틀작은도서관
세린작은도서관
에플3차아름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책마을

[동구]

책방의하루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명덕이음작은도서관
전하작은도서관

[북구]

극동푸른작은도서관
꿈꾸는작은도서관
다울림작은도서관

달천아이파크1차작은도서관
수자인작은도서관
아름드리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TFT: 하현숙 손명옥 김숙진 노미정 김양숙 김보영 김정숙



“작은도서관들의 유쾌한 작당”과 함께한 소감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평가회의]

*날짜 : 9월24일 (화) 12시 30분~ 1시

*장소 : 울산도서관문화교실 1

*참석 : 9명

*내용 : 아동학대방지교육은 전체적 만족도가 높았다.- 남구는 아카데미 교육의 참석도가 낮은 것 같아, 협회회원가입을 늘리도록 해야겠다.- 전체차시 프로그램이 알차고 좋았다.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았다. 각 구별 지원부분이 다르다는 것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보공유가 가능했다)- 도서관을 하게 된 계기, 참여한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도 만족했지만 과정이 좋았다. 가능성을 봤다.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뭔가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공모사업 잘하시는 분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초청강사로 섭외하면 좋겠다.-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진행이 신선했다.



우리에게 '스스로' 아카데미란?

(준)울산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서울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외 47곳

실 스스로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내 관심사를 찾게 되었고 그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흥 놀이였다. 처음에는 담고 싶은 것들을 이것저것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다 보니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욕심을 버리고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주 작은 화분인 달걀껍질 속에서 자라는 다육이의 이야기를 썼다. 그림 그릴 재주는 없어서 도서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미대생이 된 민아에게 그림을 부탁했다. 그림을 다룬 이가 그려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쉽게 책이 완성되었다. 책을 받아본 사람들의 첫마디가 “와~ 그림 잘 그렸다.” 였다. 그래서 또 하나 도전거리가 생겼다. 세밀화 배우기다.

김 저는 아직도 책이 진행 중이거든요. 자료는 다 모아놓고 아직도 글을 넣는 중이에요. 대개는 도서관 일들에 밀려(많은 일을 하지는 않지만) 뒤로 뒤로 가지만, 그래도 계속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담이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완성 되겠지’ 하는 근거 없는 믿음도 있어요.

장 책 한 권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게다가 도서관 이야기를 쓰려니 참 어렵지만 어찌어찌 계속 붙들고 있으니 이야기는 써졌어요. 그림 작업이 좀 잘 되어 도서관 이야기 잘 만들었던 칭찬 듣고 싶어요.

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미 속칭 내가 한 밥만 아니면 누가 차려준 밥상이 세상에서 맛난 법이라지만, 손수 차려낸 밥상이야 말로 일품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깊은 맛은 아니어도 소박한 맛은 이미 보증되었으니까요. 무더웠던 여름밤, 제 나름의 눈대중으로 고이 퍼 담은 고즈넉한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책 한 권>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 ‘아 내가 이걸 어쩌자고 시작했는가. ‘ 글도 그림도 쉽게 볼 것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며 책 만드는 단계를 따라 아이디어를 펼쳐갔습니다. 그림책을 만들겠다고 컨셉을 정하고 몇 번의 합평과 편집장님의 코멘트를 통해 글을 정리해갔고, 그렇게 쓰인 글을 그림으로 풀어내기 위해 그리고 지우기를 수차례... 스스로 책 한 권이었던 프로젝트 명처럼 나 혼자서 만들어낸 이 작은 책 한 권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좌충우돌하며 만들어낸 저의 기록입니다. 비록 그 안에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지만, 이 책이 누군가에게 공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도 가져봅니다.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응원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새로운 경험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눠주신 작은도서관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5개소

박계순 올해 4월 ‘작은도서관 함께 놀자’에 지킴이 자원봉사자로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다. 아마도 그 이전에 그림책 공부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작은 도서관은 열정과 사랑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곳이었다. 내가 6개월 남짓 경험한 결과다. 그러나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곳이었다. 열정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아니면, 혹은 나라도’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곳이기에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이 즐거이 찾는 공간,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찾을 수 있는 공간, 동네의 사랑방, 누구든 쉽게 찾을 수 있고 그 곳엔 늘 책이 있는 공간이길 바란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많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함께 하고 싶었던 북큐레이션 공부를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북구 내 여러 작은도서관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며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공부를 직접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고, 때에 따라 강사를 섭외하고 탐방할 작은도서관을 섭외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면서 함께하니 신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아직 강북구 내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필요성에 대해 말만 무성했고 실질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다보니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협력한 경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신감도 확인했다.

도서관은 무엇보다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회원들에게 읽힐 수

있는 북큐레이션 공부는 매우 현실적인 공부였다. 참여한 각 도서관마다 아이디어를 내어 전시를 기획했는데, 책을 좀 더 손쉽게 집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각 도서관의 주 이용자에 따라 특색 있는 전시가 기획되었다.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 성취감도 주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모여서 공부한 계기를 통해 강북구에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 서로 연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 령 나를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는 시간

배은진 도서관들이 회의라던가 행사, 강좌 등에서는 같이 한 경험이 있지만 여러 도서관이 모여 공통의 관심분야로 공부를 같이 한다는 약간의 긴장되고 낯설고 설레기도 했다.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공부를 하고자 만나면 서로 짧게 근황이야기를 나눌 때 각자 겪고 있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기도 했다. 함께 공부하고 그 공부를 각자의 도서관으로 돌아가 펼쳐서 여러 사람과 다시 나눈다는 생성과 순환의 의미뿐만 아니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도서관을 운영하고 혹은 도서관 운영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의 끈끈한 연대의식 같은 것이 생겨나 많은 힘이 되었다.

사람들이 오면 입고된 신간도서를 열심히 말로 설명하곤 하던 우리 마을꿈터 작은도서관도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하여 북큐레이션에 대한 기본 지식과 개념을 잡고서 단순히 말로써 전달하는 것 외에 좀 더 다양한 기획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북큐레이션을 기획하면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기획이다 보니, 안정희 선생님과 기획하는 내내 설레고 즐거웠다.

특히나 어떤 책을 소개할까 도서 선정 작업을 통해 책의 목록을 짜 보고, 다시 짜고 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된 점이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성과(사랑과 열정)는 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김현주 이론 공부와 탐방을 같이 해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북큐레이션 아이디어를 많이 배웠다. 탐방지 중에서 ‘흥부네그림책도서관’과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도서관’은 행정에서 공간,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받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서관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성공적이라는 작은도서관 탐방을 갖다 오면, 이런 경우가 많아 “부럽다”는 마음과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 작은도서관 운영을 언제까지

자원 활동가의 노력, 헌신에만 의지해야 하는 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건에서도 많은 도서관 자원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뭘까,
작은도서관에서 못 헤어나게 하는 매력이 무엇인지 알 듯 말 듯 하다.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

- 소소하지만 확실한 힘을 주는 소중한 통로다.
- 스스로 다시 힘을 불어넣어주는 펌프다.
-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곳이다.
- 만료기간이 없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힘을 공유하는 격려와 위로의 장이다.
- 천천히 돌아보고 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는 힘이다.
- 타인이 아닌 스스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는 멈춤이다.
-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커다란 우주다.
-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갈등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이다.
-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켜 주는 실천이다.

경기 모당공원작은도서관 외 30 곳

- 조혜영**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작은 한걸음
- 최향숙** 배움은 끝이 없네. 무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 김연희** 우리에게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 석보경**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지만 함께여서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자리
- 황수경** 우리의 발칙한 힘
- 양수정** 끊임없는 자아성숙 추구
- 백정희** 함께 기획하고 듣고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하다
- 신현미** 벽돌에 스미는 재미를 찾다
- 장우형** 복잡한 생각과 시선을 다잡아주면서 또 다른 고심을 하게 만드는 곳. 어딘가 열려있을 구멍 찾기 시간
- 김은실** 고전은 난해할거란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레미제라블'을 손에 잡아들게 한 힘이 있는 시간

- 김희정** 알을 깨고 나온 힘이다.
- 전성희** 스스로 아카데미란 담쟁이다. 함께 손잡고 벽을 타고 담을 넘는다.
- 이은영** 똥이다. 뿌리에서 빨아들이고 줄기를 튼튼히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 김은미** 메마른 가슴을 적셔준 아침이슬 같은 것!!!

경기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우리에게 '스스로 아카데미'란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우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를 더욱 결속시켜주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가 전면 개편될 수 있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를 다시 한 번 작은도서관지원조례 개편으로 구해주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들을 연대하게 해 주었다.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외 3곳

- 나의 성장이고 도서관의 성장이다.
- 긴 호흡이다. 험레벌떡 뛰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 쉽자 반짝임이다. 그 시간만큼은 나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서
- 단기 특강이다. 단기간 특별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 지적 자본이다. 워크숍이 작은도서관에 소중한 자본이 되어 도서관이 유지되고 윤택유가 되기 때문이다.
- 성장과 활력이다. 나를 성장시키며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 삶의 활력이 되기 때문이다.
- 새로운 씨앗이다. 알았으니 실천만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 같아서
- 다지기다.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기에
- 지난한 일상 속 새로운 시도이다.
- 도전이다.
- 배움의 샘터이다. 배워야 할 것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생겨난다.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공부이다.
- 플러스이다. 지식도 사람도 즐거움도 나눔도 더해지니까

- 새로운 재미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지식을 채우는 것이 재미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 “나” 쑥쑥 키우기다. 내가 무럭무럭 자라면 내 주변도 함께 자라니까! 그리고 나를 키우는 게 가장 남는 장사니까
- 전문가적 아이디어 생성방법이다.
- 웅달샘이다. 왜냐하면 갈등을 해소하는 샘물과도 같아서

대구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외 7곳

스스로 아카데미는 작은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디딤돌! 스스로 아카데미는 함께 모여서 듣고 말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는 따로 또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곳이다. 개별도서관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함께하는 곳이다.

울산작은도서관협회

-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에너지
-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과 열정 속에서 내가 작은도서관 활동을 하는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
- 책과 사람과 도서관에 대한 사랑
-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볼 수 있었던 시간
-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다시금 돌아 볼 수 있었던 시간
- 자기 성찰과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
- 새로운 세 살을 발견할 수 있는 힘
- 짜여 있는 강연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구성원들끼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논의하고, 집행하는 주체적 학습이다.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새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의 운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 새로운 책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 지원 및 운영 컨설팅 진행.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양성 교육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은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숍 진행. 이를 통해 작은도서관 실무자 재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작은도서관 포럼 및 연구 활동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포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포럼진행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 관한 연구와 자료 발간

- 1999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 2005년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 2006년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 (사)어린이와 도서관』
- 2007년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 2008년 『도서관에 엄마가 있다 : 품앗이를 위한 도서관학교』
- 2010년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 문헌 및 사례 연구』, 『전국 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2013년 『작은도서관의 이해와 실제』,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 2014년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2015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5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5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결과자료집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톡톡톡』, 『북유럽도서관을 듣다』
- 2016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6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6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 2017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책친구』, 『2017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획총서-1.작은도서관운동의 역사찾기 / 2.작은도서관을 들여다보다 / 3.문화, 작은도서관을 건드리다 / 4.마흔아홉,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싱가포르도서관 탐방』
 2018년 『독일메르헨가도탐방』
 『2018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기금 자료집 - 작은도서관 와하하하』
 협회 20주년 다큐멘터리 ‘작은도서관 무슨책임어’

다양한 독서 및 도서관 사업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 작은도서관에 작가 및 독서 문화예술 강사 파견 및 강의 진행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 사업

전국 작은도서관의 독서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전국 작은도서관 및 운영자 역량강화를 목표로 기금 조성·운영, 작은도서관 아카이빙,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작은도서관 긴급지원 119, 작은도서관 특화지원,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및 콘퍼런스 등 진행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돌려보기,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 어린이들이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 공공도서관이 찾아가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진행, 도서관 서비스 제공.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 서울 아름다운가게 배분사업

서울 지역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마을의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협회가 걸어온 길

- 1998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 창립총회
- 1999 어린이도서관 현황 자료집 발간
- 2001 어린이도서관용 분류법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개발
- 2004 문화관광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문광부 제3호)
- 2005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문광부에 등록
- 2006 작은도서관 운영사례집 출판 (국립중앙도서관 지원 사업)
- 2007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법인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승인
- 2008 마포구 작은도서관 3개관 수탁운영, 전국 어린이책 잔치 한마당
- 2009 도서관의 어린이자료 선정기준에 관한 해외문헌 및 사례연구
- 2010 전국어린이도서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도서관 책꾸러미 돌려보기
- 2011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도서관학교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작은음악회
- 2012 청소년 인문학 소풍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 2013 청소년 인문학 프로젝트 옴니버스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수탁 운영
- 2014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제작
- 2015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로 명칭 변경
회원워크숍 ‘향’ 개최
북유럽도서관탐방
작은도서관 정책포럼 시작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작은도서관 책친구

- 2016 일본도서관탐방
2016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포럼
- 2017 회원워크숍 '길' 개최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설립
작은도서관아카데미, 정책연구, 특화지원, 119긴급지원 등 진행
싱가포르도서관 탐방
- 2018 회원워크숍 '휴' 개최
#작은도서관무슨책임어? 캠페인 진행
'스스로' 아카데미, 정책포럼 등 진행
독일메르헨가도 탐방
- 2019 작은도서관 아카이빙전시 '작은도서관-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기금사업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업무협약
#작은도서관무슨책임어? 캠페인
작은도서관 콘퍼런스(11월)

